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전국 교육훈련기관

사회적농업 (농촌돌봄농장) 중급교육 1

8. 11.(화) ~ 8. 12.(수) 10:00~18:00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



목차 Contents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전국 교육훈련기관

사회적농업(농촌돌봄농장) 중급교육 1

▶ 교육개요 5

Day 8. 11.(화)

01. 사회적농업 활동 참여자와의 의사소통 (장애인) 11

박성경 연구원 (함께하는장곡 사회적협동조합)

02. 사회적 농업 활동 참여자와의 의사소통 (노인)..... 29

천혜란 이사장 (위드커뮤니티협동조합)

03. 사회적농업 활동 참여자의 특별한 필요 I 47

김정섭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4. 사회적농업 활동 참여자의 특별한 필요 II 67

유수상 대표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복지재단)

Day 8. 12.(수)

01. 사회적농업 활동 기획, 실행, 평가 I 99

이효진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

02. 사회적농업 활동 기획, 실행, 평가 II, III 111

유수상 대표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복지재단)

사회적농업(농촌돌봄농장) 중급교육 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전국 교육훈련기관

교육개요

- 과 정 명 : 사회적농업(농촌돌봄농장) 중급교육 1
- 교육목적 : 사회적농업 실천주체 사업기획 및 실행역량 강화
- 참여대상 : 사회적농업(농촌돌봄농장) 실천 조직 및 교육 희망자
(교육인원 초과 시 '26년 신규선정 농촌돌봄농장(개소당 1명) 우선 선발)
- 교육인원 : 30명(신규사업자 우선, 선착순 선정)
- 교육일정 : 8. 11.(화) ~ 8. 12.(수), 1박 2일
- 교육장소 :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김제시 백구면 신모길 19)
- 주 최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사회서비스과)
- 주 관 :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전국 교육훈련기관(전북연구원)
- 협력기관 :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
- 추진방법 : 집합교육(강의 및 워크숍)
- 수료기준 : 출석률 80% 이상(출석시간 기준)

교육과정명	교육인원	교육일정	교육시간
사회적농업(농촌돌봄농장) 중급교육 1	30명	8. 11.(화) ~ 8. 12.(수)	1박 2일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회적농업 등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전문교육기관으로 전북연구원(농촌경제사회서비스지원단)을 지정하고(25.4.),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준공한(25.3.) 전문교육시설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센터'(김제시 백구면 소재)에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 중

Ⅰ 교육내용

일자	시간		교육내용	강사
8.11. (화) 6h	10:00~10:30	30'	• 교육과정 안내와 준비	박정훈 전담교수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
	10:30~12:00	90'	• 사회적농업 활동 참여자와의 의사소통(장애인)	박성경 연구원 (함께하는장곡 사회적협동조합)
	13:00~14:30	90'	• 사회적 농업 활동 참여자와의 의사소통(노인)	천혜란 이사장 (위드커뮤니티협동조합)
	14:40~16:10	90'	• 사회적농업 활동 참여자의 특별한 필요 Ⅰ	김정섭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20~18:00	100'	• 사회적농업 활동 참여자의 특별한 필요 Ⅱ	유수상 대표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복지재단)
8.12. (수) 6h	10:00~12:00	120'	• 사회적농업 활동 기획, 실행, 평가 Ⅰ	이효진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
	13:00~15:00	120'	• 사회적농업 활동 기획, 실행, 평가 Ⅱ	유수상 대표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복지재단)
	15:10~17:10	120'	• 사회적농업 활동 기획, 실행, 평가 Ⅲ	유수상 대표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복지재단)
	17:10~17:30	30'	• 교육과정 회고와 평가	박정훈 전담교수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

■ 참고 : 교육시설 안내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신모길 19 (영상리 572-1) / 063-770-6000



층별안내	
지하 1층	• 전기실, 기계실
1층	• 101호 사무실, 102호 사무실, 103호 사무실, 교육생 휴게공간(카페테리아)
2층	• 201 대회의실, 202 소회의실, 203 강의실, 204 강의실, 205 강의실, 206 강의실, 207 물품보관실, 208 강의실
3층	• 301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 사무실, 302 강사대기실, 303 사무실, 옥상정원
4층	숙박공간(401~409호), 다용도실

사회적농업 활동 참여자와의 의사소통 (장애인)

박성경 연구원
(함께하는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농업 활동 참여자와의 의사소통(장애인)

함께하는장곡 사회적협동조합 박성경연구원

목차

I.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이해

1. 장애 표현과 영역
2. 장애인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3. 장애의 분류
4. 손상과 보완
5. 장애와 의존, 사회적 보완

II. 장애에 대해 :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를 중심으로

1. 우리나라의 장애 분류체계
2. 발달장애 : 지적장애와 자폐스펙트럼장애
3. 정신장애

III. 사회적 농업 활동 시 참여자와의 관계 설정

IV. 사회적 농업 활동 시 의사소통 방법

1. 공통된 의사소통 기술
2. 발달장애
3. 정신장애
4. 이 외에도 겪을 수 있는 상황들
5. 타인을 상상하는 힘

I.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이해

1. 장애 표현과 영역

- * 장애학 : 장애를 사회적 모델로 접근하며, 장애 자체보다는 장애인이 무언가 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 장애는 (신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어떤 사람의 몸에 손상이라고 간주될 수 있을 만한 이상이 존재. 정확히는 손상을 가진 사람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환경적 장벽, 제한에서 유래
- 영어권에서 사용된 공식 용어는 disabled people (장애화된 사람들)이지만, 장애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의미에서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를 가진 사람들)가 널리 사용
- 부정적인 단어 disable(~할 수 없는)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physically/mentally challenged people(신체적/정신적으로 도전을 겪는 사람), differently abled people(다른 능력을 지닌/다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완곡어법도 종종 사용
- 하지만 완곡어구는 손상이나 장애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수치스럽거나 무례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를 반대.
- 듣기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손상과 장애가 한 개인의 경험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드러내지 못한다. (수잔 바글리에리, 강종구·엄수정·홍애령 옮김(2020), 《장애학과 통합교육》, 학지사)
- 미국에서는 암이나 알코올 중독도 장애에 포함되며, 스웨덴에서는 ‘사회적 장애’로 민감하게 접근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민자도 포함. 이를 특별한 필요 (Special Needs)라고 표현. ‘언어가 사회로 진입하는 열쇠’(Language as a Key to Society)라고 비유하며 이들에게 언어 학습이 사회적 장벽이라는 구조를 보여줌.
- 미국의 문학 평론가 수잔 손택 susan sontag의 《은유로서의 질병》 : ‘어원학적으로보자면, 환자는 고통받는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환자들이 가장 깊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의 고통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비하한다는 고통이다.’ 즉 질병과 손상이 단순한 생물학적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은유적 의미를 통해 낙인을 형성한다고 분석

2. 장애인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인류의 직계 조상인 호모 에렉투스가 출현한 시기부터 따지면, 인류가 이 지구에서 살아온 시간이 대략 200만 년 정도 되는데, 그 200만 년의 길고 긴 시간 중 199만 9,800년간,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 사회에 장애인은 없었다.

인류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역사에 스파르타 말고도 유아 살해 풍습이 존재했던 사회는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이 태어나면 비인간적이고 냉혹하게 모두 죽였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가벼운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 심청전만 봐도 심봉사 얘기가 나온다.

인간 사회에는 어느 시기 어느 곳이나 팔다리가 불편한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발달이 늦은 사람 등등이 있었다. 이들이 장애인이라는 한 범주로 묶여 사고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어떻게 장애인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장애인으로 불리고,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채로 살아가게 된 걸까

3. 장애의 분류

어떤 사람의 몸에 손상이 존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손상으로 인해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즉 장애란 손상 -> 장애 -> 핸디캡이라는 3단계 인과 도식을 통해 규정한다.

이는 간결하고 논리적이다. 하지만 장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로 묶일 만한 객관적인 기준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농인과 맹인을 보자 농인은 수어, 필담 같은 시각적인 무언가를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다. 맹인은 시각이 아닌 음성언어를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다. 두 사람은 다른 감각을 사용해 세상과 사람을 인지한다.
세 사람이 있다. 나, 소아마비로 목발을 이용하는 자, 뇌 병변 장애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누구와 누가 한 부류로 분류될까? 그렇다면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식당에 갈 때, 직장을 구할 때, 화장실에 갈 때 누구와 누가 더 유사한 경험을 할까?
다음 중 장애인은 누구일까? 90세의 정정한 노인, 70세의 중증치매노인, 5개월된 아기, 엄지손가락이 절단된 40세의 건강한 남성

일상생활의 경험이라는 맥락에서든, 몸의 차이라는 기준에서든, 장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로 묶일 만한 객관적인 기준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손상을 지닌 사람이 무언가 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을 해당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속성인 손상에 귀착시키는 것에 기반이 존재한다.

4. 손상과 보완

- 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 Lev Vygotsky : 손상, 즉 콤플렉스나 약함을 보완하는 것이 인간의 발달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주장함. 즉 '손상은 단순히 결함, 마이너스, 약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능력의 발현, 플러스, 강점의 원천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하며 기존 손상에 대한 관점을 전복.
- 프랑스의 문화인류학자 샤를 가르두 Charles Gardou의 《약점이 힘이 될 때》 : '균등하지 않게 분배되어 있긴 하지만 나약함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공통의 운명이다. 다만,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뿐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 누구도 불멸하거나 전능하지 않다. 드러나는 모습이나 정도는 다르지만, 누구나 지체와 불균형, 비정상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육체, 정신, 심리, 애정·관계, 경제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야말로 인간의 보편적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 장애의 보편성은 인간 조건 전체에 대한 문제다. 따라서 소홀히 다루서는 안 된다.

- 예시 : 다운증후군과 느린 말과 행동, 자폐스펙트럼과 눈 맞춤, 상동행동
- 중요한 것은 손상보다 어떻게 그 손상을 보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고할 것인가이다.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5. 장애와 의존, 사회적 보완

- 앞서 말한 것처럼 손상을 보완한다는 것은 손상을 가지고 살 방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만 손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 지적장애가 지적장애가 아니게 될 수 있을까? 또 다른 원칙은 사회적인 보완이다.
- 예를 들면 키가 작은 사람이 키높이 구두를 신는 것, 머리를 가리기 위해 예쁜 모자를 쓰는 것이다. 중요한 건 손상에 대해서 주변에서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는지와, 내 콤플렉스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사회적 자원을 이용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어떤 자원을 줄 수 있는지에 있다.
- 도쿄대학교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당사자연구팀’ 구마가야 신이치로 교수 :
“자립은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존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이 장애인용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 장애인은 의존할 수 있는 것이 무척 적습니다. 장애인이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의존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자립이 어려운 겁니다. 인간은 약함을 서로 보충하고 의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서 강해졌어요. 장애인만 ‘의존하지 말라’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 크리스테바 : 배제의 근원이 인간이 자신의 약점과 손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누구나 손상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이를 타인의 문제로 전가하고 손상을 지닌 사람을 ‘특수한 존재’로 낙인찍는다. 이는 개별적인 신체적 손상을 인간의 보편적 조건에서 분리하여, 특수성과 보편성의 연결을 단절시키는 과정이다. 이러한 단절은 손상을 지닌 사람들을 사회적 이방인으로 만들고, 결국 차별과 배제의 구조를 강화한다.
- 하지만 인간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기대어 의지하는 존재이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의자, 책상, 이용하는 건물, 사용하는 불펜, 생수, 커피, 점심에 먹을 음식들, 그 어느것 하나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은 없다. 우리는 모두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 장애 문제는 장애인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관계의 문제이다. 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도 단절하고 스스로 권리의식도 높여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비장애인이 바뀌고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비장애인이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비장애인이 장애 문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장애 문제의 해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II. 장애에 대해 :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를 중심으로

1. 우리나라의 장애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췌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췌장의 내분비기능 이상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출처 :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개정안

2. 발달장애 : 지적장애와 자폐스펙트럼장애

1) 지적장애

- 정신박약,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에서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y)
- 과거에는 IQ50~70을 3급, 50 이하 2급, 35 이하 1급으로 나누었으나 19년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지적장애 1~3급은 모두 정도가 심한 장애로 판정
- 뇌병변장애 중 인지적손상이 있는 경우 50%가 발달장애와 중복 장애를 가짐.
- 지적장애의 특징

학습된 무기력	좌절에 대한 경험, 노력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절망스러운 결과가 돌아올 것이라는 무기력감이 학습되어 과제가 주어지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거나 미리 포기하려고 할 수 있다.
낮은 자아개념	장애에 되고 싶은 '이상적인 자아상'이 비장애인의 자아상에 비해 낮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다른 사람의 행동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증가하면 자아개념도 향상될 수 있다.

자기결정	장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한성으로 인해 인생 전반의 결정이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기대 동기 (expectance motivation)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즐거움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새로운 과제를 잘 선택하지 않는다. 목표에 대한 성취감을 맛보면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
감각·운동 기능적 특성	신체적 움직임, 감각 활용에 어려움을 보인다. 특히 대근육보다는 소근육의 활용 시 더 많은 어려움을 보인다. 예를 들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공이나 동전을 잘 집지 못하고, 물건을 잡을 때 손가락을 사용하기보다는 손바닥 전체를 쓰는 경우가 많다.

2) 자폐스펙트럼 장애

- * 스펙트럼(spectrum) : 발병 시기, 예후, 심각성을 뚜렷하게 구분하여 말하기 어려움.
- 보통 3세 이전에 나타나고 70% 정도가 지적장애를 동반. 반면 지하철 노선도를 모두 외우거나, 숫자에 집착해 번호를 나열해 말할 수 있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도 있음.
-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특이한 행동(손 흔들기, 흘겨보기, 맴돌기, 특정 말소리 내기 등 특정 활동의 반복이나 상동증적인 움직임들)을 하고, 변화에 대한 저항이 심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감각경험에 대한 특이한 반응이 사람마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음.
- 자폐스펙트럼의 특징

사회 정서적 특징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상으로는 말하면서도 눈 맞춤을 회피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누군가 예뻐하며 호의를 가지고 안아준다거나 손을 잡거나 할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불편해하고, 만남이 계속되더라도 쉽게 친해지지 않는다. 쉽게 알 수 없는 이유로 피로워하며 짜증을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때도 있는데,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가족이나 주변인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때도 있다.
감각 운동 및 인지적 특징	특정 감각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피하거나 오히려 더 찾아 나서는 경우가 있다. 반짝거리는 것을 계속 들여다보려 하거나 푸르스름한 광고판을 아주 무서워할 수도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지나치게 과민하거나 둔감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일상 활동 수행의 특징	씻기, 먹기, 옷 입기, 잠자기 등의 전반적인 일상생활 영역에 걸쳐 일정한 행동 패턴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주장하는 정도가 매우 강하거나, 원하는 것이 안 될 때 지나치게 피로워한다. 청소를 위해 거실의 물건을 옮기거나, 엄마와 마주 잡는 손가락의 순서가 평소와는 달라졌다거나 할 때도 예외 없이 불편한 반응을 보이기도 할 것이다.
의사소통의 특징	알리고자 하거나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마음을 언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높고 단조로운 톤으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들은 대로 인칭을 바꾸지 않고 사용하기도 한다. 종종 특정 상황에서 광고문구를 그대로 따라 말하며 자신의 감정표현이나 의사 표현을 대신하기도 한다.

3) 경계선 지적장애(느린 학습자)

- 웨슬러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능지수가 71~79점이거나 DSM 기준 71~84점으로 지적장애인과 비 지적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으로 분류되는 상태로 전체의 13%에 해당
- 대부분 부모는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고 지나간다. 본격적으로 징후가 눈에 띄는 시기는 초등학교 1~2학년부터다. 또래 친구들이 경계선 지능 아동과 자신의 차이점을 느끼고 놀리기 시작한다. 함께 놀이할 때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고,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3. 정신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전에는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4가지 진단만 가능했으나, 후에 강박장애, 기질성 정신장애(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정신장애), 투렛장애, 기면증이 추가되었다.
-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은 혼동되어 사용하지만, 정확하게 '정신장애'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장애'보다 '정신질환'이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 이 강의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정신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인해 일상·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보려 한다. 아래는 주변에서 듣거나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이다.

1) 조현병(調絃病, schizophrenia)

- 조현병은 과거 정신분열병으로 불렸으며, 이전에는 심리적인 질환으로 인식되었다. 조현병은 현악기의 줄을 고르는 것처럼 뇌(신경전달물질)에 조율이 필요한 상태라는 뜻이다. 조현병은 사고의 장애(뇌 질환)이다. 즉 주된 증상이 생각하는 과정의 문제로 생겨난다는 것이다. 사고장애는 다시 사고 형태의 장애(자폐적 사고 등), 사고 과정의 장애(사고의 비약 등), 사고 내용의 장애(망상 등)로 구분된다.
- 조현병은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에 발병하며, 통계적으로 100명 중 1명이 걸릴 수 있는 질환이다.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신력이나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보다 학계에서는 뇌의 기질적 이상으로 원인을 보고 있다.
- 조현병의 진단은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한다.

- 1) 적어도 6개월 이상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고, 동시에
 - 2)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장애가 있고, 동시에
 - 3) 신체적 질병이나 물질 남용 등 상당히 근거 있는 다른 원인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정신병적 증상이란 환각, 망상 및 와해된 언어 등 세 가지 기본 증상을 가리킨다.

<양성(급성)증상의 종류>

① 환각(hallucination)

착각과는 다르게 유발하는 자극 없이 느껴지는 감각을 환각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오감이라고 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모든 감각에서 환각을 경험할 수 있다. 가장

혼한 환각은 환청과 환시이며, 흔히 망상과 연관되어 있다.

환청의 목소리는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경우가 많고 위험한 행동을 지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참여자는 혼잣말을 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에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에게 실제로 느껴지는 감각이며, 사실이라는 것이다.

② 망상(delusion)

망상은 교정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이다. 망상을 겪는 사람은 우리가 절대로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을 건다고 생각하거나(관계망상), 자신이 예수라고 생각하거나(종교망상),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피해망상), 망상에 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망상이라는 점을 아무리 설명하고 입증해도 절대 믿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다.

③ 와해된 언어(disorganized speech)

와해된 언어는 차단되거나, 흐름에서 벗어나고, 동문서답하듯이 질문에 어긋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오늘 기분이 어때요?”라는 질문에, “어제 뉴스를 봤는데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진대요. 아빠는 자격증이 있어야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다는데 저는 회사를 다녀봤더니 일하는 게 어렵고 돈도 얼마 못벌더라고요. 예전에 들었는데 수능시험 300점 맞으면 00대학교에 갈 수 있대요. 수능 시험을 다시 볼까요?”식의 대답이다. 문장 하나하나를 문법적으로 정확할지라도, 전체적인 문맥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④ 부적합 정동(inappropriate affect)

정동affect은 얼굴 표정이나 행동으로 추정되는 감정을 말한다.

조현병에서 다음으로 흔한 증상은 부적합정동, 감정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 말하면서 웃음을 터뜨리거나, 좋아하는 스포츠 팀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한다. 아무 이유 없이 감정이 변하면서 감정이 불안정한 것이다.

<음성(만성)증상> : 우울증 증상과 비슷

- ① 표현 부족 : 느린 감정 반응, 느린 동작, 이상하고 경직된 자세
- ② 사회적 철퇴 : 사회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멀어짐
- ③ 동기 상실 : 모든 일에서의 흥미 상실, 개인의 위생상태 무시
- ④ 언어 빈곤 : 느린 말, 불명확한 언어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bipolar disorder)

- 양극성 정동장애는 기분mood의 장애다. 기분장애는 기분이 지나치게 들뜨거나(조증), 지나치게 가라앉거나(울증), 양쪽 상태가 번갈아 나타난다.
- 사람이라면 모두 감정 기복이 있지만, 정동장애라고 하려면 기분이 극단적이어야 한다. 우울을 예로 들면, 식사와 수면 패턴이 변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활력과 관심이 떨어져 거의 아무 것도 못할 정도다. 반면 조증일 때는 지나치게 기분이 들떠 말도 빠르고, 잠은 거의 자지 않고, 식사도 불규칙하고, 많은 돈을 쓰거나, 물건을 마구

나뉘주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과대망상이나 환청도 동반한다.



<기분장애와 정상의 기분범위>

출처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https://www.mentalhealth.go.kr/>

주의할 것은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하더라도 우울한 시기가 조증인 시기의 3배 정도에 해당하며, 우울증에서의 우울정도보다 더 우울함이 깊다.

3)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 우울한 기분이라는 단어 때문에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체적인 뇌 기능brain function의 저하가 일어난다. 그래서 불면이나 식욕저하, 소화불량, 원인 모를 통증처럼 여러 신체적인 증상들이 동반된다.
- 주요우울장애의 위험요인은 성별(여성), 경제수준, 결혼상태, 스트레스, 가족력 등 다양하며 갑상선기능저하증같은 신체질환이나 약물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
- 주요우울장애는 진단기준은 최소 2주 이상,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울한 기분, 흥미저하, 식욕 및 체중의 변화, 수면장애, 무가치감, 피로, 자살사고 등이 동반될 때이며, 이는 일생동안 반복될 수 있다.

소아청소년	중년	노인
• 짜증, 반항 • 등교거부, 성적저하 • 여러 가지 뚜렷한 신체 증상(두통, 복통..) • 약물남용 • 청소년 비행	• 건강염려증 • 죄책감, 의심 • 절망감, 공허감 • 건망증 • 화병 • 폐경기의 경우 안면홍조, 발한, 수면장애를 경험하며 20~30%가 우울감, 불안, 기억력 저하 • 중년 남성의 경우 신체 증상보다는 정신적 고통이 큼. 자살률이 높으며 치료 받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	• 모호한 신체증상 • 불면 • 불안 •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 가성치매 : 과거+현재 모두 헛갈림

<연령에 따른 우울 증상>

4) 정신질환의 주관적 경험

- 앞에서 주요정신질환과 그 증상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밖에서 관찰한 시각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자신의 증상을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런 이해 없이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증상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

공포와 혼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 대다수는 항상 다음번에 다시 악화되는 시기가 언제일까 하는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 비논리적이며 이치에 맞지 않는 것들 또한 마찬가지로 공포스럽다. 공포와 무질서한 생각으로 인해 집중하고,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충동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아감각의 혼란	심한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 자아경계가 약해진다. 즉 자신이 어디까지이고(내부), 어디부터 타인인지(외부)를 모른다. 라디오에서 들은 뉴스에 화가 나 있는데, 마침 아버지가 들어왔다면 아버지가 화가 났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슬픈데 주변 사람에게 왜 그리 슬퍼하느냐고 묻는다.
조종당하는 느낌	흔한 망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자기 마음을 조종한다는 생각이다. 생각이 제멋대로 변하고 도저히 멈추기 힘든 경우 이런 느낌을 받는다.
사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사고가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다. 특정한 단어나 행동이 특별한 의미를 갖기도 하며,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특정한 의식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도 가질 수 있다.
관계관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느낌을 나타낸다. 주변 사람의 단순한 몸짓조차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조종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신호로 해석하기도 한다.
연상이완	한 가지 생각이나 단어를 아주 미미하게 연관된 다른 것과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다. 신문에서 사과가 건강에 좋다는 기사를 봤다는 말을 하다가, 누구에겐가 사과할 일이(이리) 있는데 잊어버렸다고 했다가, 이리는 늑대와 어떻게 다르냐고 묻는 식이다. 이런 연관관계를 쫓아가기는 매우 어렵고 불가능하다.
비난에 대한 과민반응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를 훨씬 잘 기억한다. 어떤 것은 잘했고 다른 것은 못했다고 한다면 못했다고 한 것만 기억할 것이다.
절망과 무기력	심한 우울인 경우 절망적인 기분이 들며,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고 집에서 나갈 수도, 옷을 입을 수도 없다. 주변 사람들은 의지의 문제라고 하면서 기쁨을 붓기도 한다.
병식	병식이란 자신에게 질병이 있으며, 약을 잘 복용하고 스스로 치료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증상이 나타나고, 악화 또는 호전되는지 깨달는 사람도 있다.

Ⅲ. 사회적 농업 활동 시 참여자와의 관계 설정

<참여자를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1. 우리 농장에는 누가 오는가? : 연령, 성별, 장애 유형, 감정...
2. 나는 참여자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 대상자, 이용자 ○○님, ○○씨, ○○야, 어르신
3. 이 호칭은 참여자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
4. 참여자들은 나를 어떻게 부를까? : 선생님, 대표님, 농부님...
4. 농장에 오는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 이웃, 손님, 체험자, 고객, 친구
5. 참여자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 선생, 농장주, 이웃, 아는 어른

<우리 농장은 어떤 곳이 되고 싶은가?>

1. 우리 농장은 참여자에게 어떤 인상을 줄까? : 일하는 곳, 쉬는 곳, 배우는 곳...
2. 농장에 오는 참여자는 무엇을 기대할까?
3. 농장은 참여자에게 어떤 경험을 주고 있을까? : 성취, 실패, 재미, 긴장, 배움, 위로
4.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경험은 무엇일까?
5. 앞으로 어떤 경험을 주고 싶은가?

Ⅳ. 사회적 농업 활동 시 의사소통 방법

1. 공통된 의사소통 기술

1. 친절하고 친절하십시오.
2. 품위 있고 존중하는 사람으로 대하십시오.
3. 서로 다른 의사소통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5.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6. 경청합니다.
7. 이해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8.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으면 상대방에게 알려주세요.
9. 어려움이 있습니다.
10.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질문하십시오.
11.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12. 이해하지 못하면 반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 보라고 요청하십시오.
13.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14. 사람에게 직접 말하고 눈을 마주치십시오.
15. 인내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응답할 시간을 주십시오.
16. 질문을 하면 상대방의 답을 기다리십시오.
17.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말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말하세요.
18. 정상적으로 말하십시오. 목소리를 높이거나 말을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2. 발달장애

1) 한 번에 한가지씩만 안내해야 한다.

예시) “이제 고구마 상자 하나만 옮겨볼까?” → (작업이 끝나면) → “이제 물을 주자.”

2) 명료한 문장이나 단어를 사용한다.

예시) “그거 좀 정리해 줘” 대신 → “이 바구니 안에 고구마를 넣어줘.”

3) 무엇을 할 수 있고 못 하는지 오랫동안 관찰을 해야 한다.

예시) A참여자자는 물뿌리개로 화분에 물 주기는 잘하지만, 물 양을 조절하는 건 어려움.

→ 따라서 처음엔 같이 물 양을 조절해주다가, 익숙해지면 혼자 하게 돕기.

: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준 ~ 타인의 도움으로 할 수 있는 수준 사이의 영역에서 지원

4)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 일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5) 지속적, 반복적으로 당사자 중심으로 말한다.

예시) “00씨는 꽃을 잘 기억하시네요!”, “이번에 00씨가 해준 일이 참 도움이 됐어.”

6) 눈높이를 맞추어서 말한다.

7) 못하는게 아니라 최선이다.

3. 정신장애

상황	의사소통
활동 참여를 거부할 때	게으르고 의욕이 부족한 것도 증상일 수 있다. 참여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활동을 준비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다 같이 해야 하는 활동을 거부하는 경우는 활동의 목적에 따라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돌봄이 목적이라면, 참여자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지만, 교육이나 고용이 목적이라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쉬게 하거나, 무조건 활동을 격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Tip 만성정신질환자의 경우 여러 신체활동이 부족하며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근육이 경직되어 활동이 둔하고, 농작업이 서툴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는 참여자에게 적절한 작업량과 종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프로그램 중에는 참여자를 관찰하며 작업을 이해하고 있는지, 반복할수록 능숙해지는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망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 그러시군요.” 정도의 대답도 충분하다. 가능하다면 다른 대화 주제로 전환하거나 감정을 읽어준다. 내용은 기관 담당자에게 전달하며, 정도가 심해 활동 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다른 참여자들에게 영향이 있다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긴 소감이나 피드백을 듣고 싶을 때	특히 만성정신질환자의 경우 음성증상과 약의 부작용, 대인관계 경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크다. 이럴 때는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말을 시작하거나, 활동지를 이용하여 생각을 먼저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다. “오늘은 OO님이 처음으로 먼저 배추에 물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	--

4. 이 외에도 겪을 수 있는 상황들

- 당뇨/고혈압이 있는데 간식을 더 먹고 싶다고 조르는 경우
 - 활동해야 하는데 하기 싫다, 안 한다는 말부터 하는 경우
 - 활동 진행을 방해하면서 계속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경우
 - 농장에 오는 것은 좋아하는데 활동에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 혼자보다는 여럿이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여 같은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필요

[참고 1]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말과 언어의 표현 및 이해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손상, 활동 한계, 참여 제약 등을 고려하여 구어를 보완하거나 대체 하는 것이다. 그림이나 사진 같은 상징물 또는 버튼을 누르면 음성이 나오는 장치도 이에 해당한다.

 위의 투표카드 위의 카드 위의 문건스케치 위의 전화스케치	 쉽게 말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산나요 복지카드, 약, 우산, 전화 버스, 자동차, 지하철, 병원 복지관, 집, 카페, 편의점
참고 :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http://www.scom.or.kr/	참고 사이트 : 소소한 소통 https://www.sosocomm.com/

[참고 2] Washington Group Questions (워싱턴 그룹 질문)

- 전 세계적으로 장애 통계를 비교 가능하기 위해 개발된 6가지 기능 제한 질문 세트로 기능 제한 (functioning difficulty)에 대한 자기보고를 중심으로 장애 여부를 파악

- 핵심적인 6가지 질문 (Short Set) : 평소 생활을 기준으로 응답하며,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전혀 없음, 약간 있음, 많이 있음, 전혀 할 수 없음으로 응답

영역	질문 예시	사회적 농업 적용 방안
시력	안경을 써도, 일상생활에서 물건이나 사람을 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텃밭에서 식별이 쉬운 큰 글씨 라벨, 색 대비가 높은 안내판
청력	보청기를 사용해도, 사람들의 말을 듣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작업 지시 시 시각자료 활용 (그림카드)
보행	보조기구 사용 여부와 상관 없이 100미터를 걷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동 동선 단축, 휠체어 접근 가능한 환경 설계
기억, 집중	말을 이해하거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활동을 한 번에 하나씩 시작 자료 (오늘 일정, 그림으로 된 매뉴얼) 제공
자기관리	혼자서 씻고 옷 입기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실습 복장 준비시 도움 화장실 이용 시간 확보
의사소통	본인의 말을 이해시키거나, 다른 사람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짧고 명료한 말, 반복 설명

5. 타인을 상상하는 힘

폴블룸의 《공감의 배신》

- 공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바꿔 말하자면, 공감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 무엇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지, 무엇이 그에게 즐거움과 괴로움을 안겨주는지, 그가 어떤 상황에서 굴욕감을 느끼고 어떤 상황에서 존중받는 기분을 느끼는지를 이해할 줄 안다. 그가 느끼는 괴로움을 나도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느끼는 괴로움을 굳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그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해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인지적 공감'이다.
-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에게 낙제 가능성을 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 말을 들으면서 학생이 지나치게 좌절하거나 무안해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조카를 위한 선물을 살 때는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조카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사야 한다. 이 정도는 도덕철학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타인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병철의 《피로사회》

- 타자가 현존하지 않을 때 소통은 정보들의 가속화된 교환으로 전락한다. 이런 소통은 어떠한 관계도 만들어 내지 못하며, 오로지 연결만 낳을 뿐이다. 그것은 이웃이 없는, 어떠한 친근함의 가까움도 없는 소통이다.

[참고문헌]

- 협동조합 행복농장. 『어떻게 만날 것인가』. 시골문화사, 2018.
- 김도현.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봄, 2021.
- 윤상원 외. 『특수에서 보편으로』. 교육공동체벗, 2025.
- 한병철.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2012.
- 폴 블룸. 『공감의 배신』. 이은진(역). 시공사, 2019.

사회적 농업 활동 참여자와의 의사소통 (노인)

천혜란 이사장
(위드커뮤니티협동조합)

노인의 이해와 의사소통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 만들기

일시 : 2026년 8월 11일(화) 13:00~14:30

장소 : 농촌경제사회서비스원생각지원센터

전혜란 (위드커플협동조합 이사장 / 사회복지학박사)

 위드커플 협동조합
we-couple.com



사회적 농업이란 무엇인가?



[정의]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 서비스 제공, 취약 계층의 사회 통합 및 재활을 지원하는 농업 모델

[핵심 가치]

치유, 돌봄, 교육, 고용, 공동체 형성 등을 통해 사회적 목적 실현

[다른 이름]

- 돌봄 농업 (Care Farming),
- 복지 농업 (Welfare Farming),
- 치유 농업 (Therapeutic Farming) 등



사회적 농업의 주요 특징 및 가치

[특징]

- ▶ 다양한 활동: 농작물 재배, 동물 돌보기, 자연 체험, 원예 치료 등
- ▶ 참여 중심: 이용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주도성 강조
- ▶ 전문성: 농업 기술과 사회복지,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
- ▶ 지역사회 연계: 지역 자원 활용 및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사회적 농업의 주요 특징 및 가치

[가치]

- ▶ 사회 통합 : 소외 계층의 사회 참여 증진
- ▶ 건강 증진 : 신체적, 정신적 건강 개선
- ▶ 삶의 질 향상 : 자존감 회복 및 성취감 부여
- ▶ 환경 보호 :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



사회적 농업의 주요 대상

- ▶ 장애인: 지적,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
- ▶ 고령자: 치매, 우울증 등 노인성 질환자 및 일반 고령자
- ▶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중단 및 학교 부적응 청소년
- ▶ 다문화 가정: 사회 적응 및 문화 교류 지원
- ▶ 사회적 기업 종사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고용 및 교육
- ▶ 일반인: 스트레스 해소 및 치유 경험



사회적 농업과 고령 이용자

- ▶ **고령화 사회:** 급증하는 고령 인구와 늘어나는 노인성 질환
- ▶ **사회적 농업의 역할:**
 - **신체 활동 증진:** 농작업을 통한 근력 유지 및 활동량 증가
 - **정신 건강 개선:** 자연과의 교감, 성취감을 통한 우울감 완화 및 인지 기능 향상
 - **사회적 관계 형성:** 공동체 활동을 통한 외로움 해소 및 소속감 증진
 - **삶의 활력:**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통한 삶의 의미 부여



[1부]

노인에 대한 이해





강의목표

- 노인의 특성과 삶의 맥락 이해
- 노화에 따른 의사소통 변화 이해
-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소통 기술 익히기

“노인”이라는 말이 주는 이미지

고집이 세다	도움이냐 배려받는 것을 당연시한다	의심이 많다	자신의 노화상태를 수용하지 않는다
욕심을 낸다	말이 많아진다	행동이 느리다	잘 아프고 병원을 자주 찾는다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게으르다	잘 빠진다	점점 추해진다
서럽다는 느낌을 갖는다	눈치없고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사기 당하기 쉽다	옛일을 자주 언급한다

노인의 다양성

건강한 노인 vs 취약 노인

경제적 여유 vs 빈곤

가족 동거 vs 독거·무연고

“노인” 이라고 해서 모두 비슷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일하시고,
어떤 분은 하루 대부분을 집 안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노인은 원래...” 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신체적 노화와 소통

- 시력 · 청력 저하
- 균형감 · 움직임 감소
- 피로 증가



청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크게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도, 발음, 환경이 중요해집니다.



인지 기능 변화

- 기억력 · 주의집중 저하
- 정보 처리 속도 느려짐
- 새로운 정보 이해에 더 많은 시간 필요

“같은 설명을 여러 번 해야 할 때가 많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말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심리 · 정서적 변화

- 상실 경험 : 건강 · 배우자 · 역할
- 외로움 · 불안 · 우울
- ‘나는 쓸모 없어진 걸까?’라는 느낌

“말이 거칠게 나오는 어르신 뒤에는 이런 상실감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 만 보지 말고, 그 뒤의 감정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 변화

- 은퇴 후 사회적 역할 축소
- 자녀와의 거리, 친구·이웃 관계 감소
-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만 인식됨

“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살아오신 분이 어느 순간 ‘도움 받는 사람’으로만 대접받게 되면, 자존감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 지점에서 갈등과 저항이 생기기도 합니다.”



노인의 일상 대면 장면

- 병원·행정·복지기관에서
- 복잡한 용어, 빠른 말, 짧은 상담 시간
- ‘모르겠지만 그냥 도장 찍는’ 경험

“우리가 일하는 현장도 어르신에게는 어렵고 낯선 공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분께는 얼마나 복잡하게 들릴까?’를 한 번씩 떠올려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 vs 상황

- ‘문제 있는 노인’이 아니라
-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
- 시선의 전환이 소통의 출발점

‘왜 이렇게 까다로우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 한 번만 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라고 바꿔 보는 연습을 해보면,
 우리의 태도와 말투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2부] 의사소통의 원칙과 기술



기본 원칙 한눈에

- 천천히, 분명하게, 한 번에 하나
- 눈 맞춤, 같은 높이, 조용한 환경
- 존중하는 호칭, 끊지 않고 듣기

“기술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슬라이드 한 장만 기억해 가셔도 충분합니다.”



환경부터 정리하기

- TV · 라디오 소리 줄이기
- 보청기 · 안경 확인
- 조명과 자리 배치

“말을 바꾸기 전에, 먼저 [환경]을 바꾸면 대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어르신과 같은 쪽을 바라보고 앉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많이 줄어듭니다.”



말하는 방식 바꾸기

- 짧고 쉬운 문장으로
- 한 번에 하나씩 설명
- 중요한 내용은 천천히, 두세 번

“우리는 설명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많이 느끼죠, 하지만 노인과 소통할 때는 [짧게, 천천히, 반복해서]가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비언어적 소통

- 표정, 눈빛, 몸의 방향
- 손짓 · 메모 · 사진 · 실물 활용
- ‘괜찮으세요?’라는 손길

“말로는 [괜찮아요]라고 하시면서도 표정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과 몸을 같이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청과 공감 문장

- “그래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 “어르신 생각은 어떠세요?”

“이 세 문장만 잘 써도 어르신의 마음이 훨씬 더 열립니다.
잠시 짝을 지어 서로에게 공감 문장을 한 번씩 연습해 보겠습니다.”



반복 질문에 대응하기

- ‘또 물으셔도 괜찮다’는 태도
- 달력 · 메모 · 스티커로 함께 보기
- 불안감이 원인일 수 있음을 기억

“반복 질문은 기억력 문제이기도 하지만, [불안해서 확인받고 싶은 마음]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다시 알려드릴게요]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화를 내는 어르신과의 소통

- 먼저 감정을 가라앉히는 시간
- 논쟁보다 감정 공감
-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걸리세요?”

“이때는 말로 설득하려고 할수록 더 꼬일 수 있습니다.
우선 감정이 식을 시간을 드리고,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 힘들었는지를 물어보는 게 핵심입니다.”



치매 어르신과의 소통

- 틀린 사실을 바로잡기보다 감정 공감
- 시간·장소·사람 단서를 반복 제공
- 비난과 창피 주기는 금지

“그거 아니에요” 라고 바로잡는 것보다, “그때 많이 무서웠겠어요”
처럼 감정을 먼저 안아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존중과 인권 감수성 있는 언어

- 호칭 : ‘어르신’, ‘선생님’, ‘○○○ 어르신’
- “그 나이면”, “원래 늙으면 그래요”는 금물
- 작은 농담도 상처가 될 수 있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지만,
어르신에게는 [존재 자체가 평가받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와 병을 가지고 농담하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결정권을 지지하는 말

- “이렇게 하세요” 대신
- “몇 가지 방법을 같이 볼까요?”
- “어르신께서 결정하시면, 그에 맞춰 도와드릴게요

“도움을 드리더라도 선택권은 어르신께 남겨두는 말하기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게 인권이고, 동시에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현장에서의 어려움 나누기

- “어르신과 소통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 서로의 경험에서 해법 찾기

“지금까지 배운 내용과 연결해서, 각자 겪는 어려움 1가지를 나눠 보겠습니다. 서로의 경험 속에 이미 해답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7가지 조건

- 1) 웃는 얼굴, 밝은 모습을 만든다.
- 2) 감정적 언어, 절제되지 않은 용어는 피한다.
- 3) 우선 경청하는 사람이 되라.
- 4) 들기준비가 됐을 때 말하라.
- 5) 눈을 보며 대화하라.
- 6) 정직성과 열정이 느껴지도록 하라
- 7) 3W (Who, Where, When)의 법칙을 기억하라





사회적농업 활동 참여자의 특별한 필요 I

김정섭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회적 농업 활동 참여자의 특별한 필요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개요

사회적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 달리 말하면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알아두어야 할 개괄적인 내용을 전달한다. 지적장애인,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 행동장애 또는 특별한 필요(special needs)를 지닌 청소년, 노인, 아동, 농사를 배우고 농촌에 살기를 바라지만 지식이나 경험이 아주 적은 청년이나 여성 등의 신규취농 희망자 등이 ‘사회적 농업 활동 참여자’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직면한 도전은 무엇인지, 사회적 농업이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한 지식을 전한다.

2. 학습 목표

- 학습자는 사회적 농업 활동 참여자가 직면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 문제를 정의하고 그들이 어떤 도전 앞에 놓여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 학습자는 여러 유형의 참여자 집단 간의 차이점을 알고, 각 유형의 참여자 집단이 지닌 장애나 특별한 요구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 학습자는 각 유형의 참여자에게 사회적 농업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3. 소요 시간 및 교보재

- 2시간
- 칠판, 컴퓨터, 스크린

4. 강의 내용

사회적 농업의 참여자, 즉 대상 집단(target group)은 특별한 필요를 지니고 있거나 불리한 여건에 놓인(disadvantaged) 사람들이다. 교육적·치료적(therapeutic) 이유로 또는 낮 시간에 돌봄을 받으려고 농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농장에서 살거나, 농장에서 일하는 이들이다. 지적 장애인, 정신장애인이거나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 행동장애나 특별한 필요를 지닌 청소년, 노인, 아동, 농사를 배우고 농촌에 살기를 원하는 신규취농 희망자 등이다. 그 밖에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인종이나 민족이 다른 소수자, 중독자,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장기 실업자, 기타 사회적 배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최선의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지지하고 도우려면, 증상이나 장애 등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처한 참여자들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기술(skill)을 알아야 한다.

4.1. 장애 또는 특별한 필요를 지닌 사람들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애를 두고 “손상, 활동 제약, 참여 제한 등을 포괄하는 용어다. 장애란 건강 상태(예: 뇌성마비, 다운 증후군, 우울증 등)와 개인적·환경적 요인(예: 사람들의 부정적 태도, 교통이나 공공 건물에 접근할 수 없는 여건, 사회적 지지 부족 등)이 상호작용해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장애가 있을 수 있다

- 신체 또는 감각
- 지능 또는 학습의 어려움
- 정신(mental)

장애가 있는 사람은 여러 방식으로 영향받고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 건강 상태 악화(예: 두 종류 이상의 만성 질환 동반, 연령과 관계된 상태 악화, 흡연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는 비율 상승, 신체적 비활동성, 빈약한 음식 섭취)
- 낮은 교육적 성취
- 경제활동 참여 수준 낮음(예: 높은 실업률)
- 높은 빈곤율
- 의존성 증가 및 참여 제약

사회적 농업 참여자 모두가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그런 의미의 장애를 지닌 것은 아니다. 무시를 경험한 청소년, 언어적 장벽이나 문화적 충돌 앞에서 싸우는 난민, 장기 실업자 등도 사회적 농업의 중요한 참여자로 포함된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에서는 “특별한 필요를 지닌 사람들”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많다. 이들 참여자가 낮은 교육 수준, 빈곤, 약물이나 알콜 남용, 사회적 배제 등의 문제를 겪는 경우도 흔하다. 더 심각하게는 이들이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겪는 경우도 자주 있다. 예를 들어,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이나 난민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나 우울증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신체 활동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아주 적은 장기 실업자도 정신건강 상태가 쇠약해질 수 있다. 그 밖에도 사회적 농업 참여자는 이중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약물 중독자 중에는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고, 난민이나 장기 실업자 중에 장애인이 있을 수 있다.

4.2. 사회적 농업은 참여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사회적 농업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사회적 농장의 스태프(staff)들을 상대로 면담 조사를 진행한 영국의 한 연구에서, 그들은 대체로 농장에 대해 “사람들이 자연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을 경험할 수 있는, 자기 것처럼 따스하고 힘을 주는 환경”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농장이 참여자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포용적 환경을 제공하는 장소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참여자 자신을 타인이나 자연과 연결할 수 있고, 참여자들의 자주성(autonomy)을 발달시킬 수 있다. 참여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주어지는 돌봄 농장에서, 사람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농업의 편익(benefits)을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

신체적 효과:

- 능력(skill) 발달
- 신체 건강 증진
- 일자리

정신건강 효과:

- 인지 능력
- 의욕
- 개인적 책임감 증진
- 자아존중감¹⁾(self-esteem) 증진

- 웰빙 well-being 증진

사회적 효과:

- 사회적 농업 활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
- 사회적 농업 활동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
- 사회기술²⁾(social skill)
- 팀을 이루어 작업하기
- 작업 습관, 훈련
- 작업 성취
- 독립성
- 교육적 성취

지역사회 효과:

- 사회 안에서 장애 또는 건강 문제에 관한 이해 증진
-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 접촉 개선
-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지역사회 참여

기타 효과:

- 역량 또는 능력 수준 유지
- 짜임새 있는 일상 유지
- 경제적 생활에의 참여
- 자신의 의지를 통제하는 법 배우기
- 생활의 목적 정하기
- 운동 능력 발달 (학교 농장)
- 농산물에 대한 존중감 증진
- 농업에 대한 지식
- 동물을 만나는 법 배우기
- 직업 자격증 또는 노동 통합, 직업능력
- 노동시장에 진입

1) 자신에게 가지는 애착, 존중, 사랑, 신뢰를 느끼는 기본욕구. 김춘경이수연이윤주정종진최용용(2016), 《상담학 사전》, 학지사, 1615~1616쪽을 참고하라.

2) 타인과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의사소통을 수월하게 하는 사회역량을 뜻한다. 이를 통해 사회 규칙이나 관계가 발생하고 소통된다. 사람들이 소통하고 학습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적절히 욕구를 충족시키고 타인과 어울리고 친구를 사귀고 건강한 관계를 수립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일반적으로 사회와 조화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이다.

4.3. 사회적 농업의 한계를 바로 알기

치료 측면에서 사회적 농업의 한계를 알기

사회적 농업 활동이 치료적 효과를 낳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나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교육과 치료는 서로 다른 능력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치료는 낮게 하는 것이고, 이에 비해 교육은 학습을 경험하는 능력을 갖춰주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농업을 통해 정신 질환이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일에 따르는 한계를 알 필요가 있다. 사회적 농업은 대부분 치료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사회적 측면,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등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농업은 사람들의 정신적신체적 웰빙을 도와줄 수 있다.

농민과 함께 일하는 참여자의 한계를 알기

치료 측면의 한계를 알고 나면, 농장에서 사회적 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한계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한 참여자 집단과 함께 일하는 동안 만나게 될 수도 있는 질병의 증후나 정신적 상태(예: 트라우마, 병의 악화, 우울), 행동 패턴, 행동상의 증상 등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과도하게 일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농민이 보기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지 않은 상황이어도 특별한 필요를 지닌 이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힘든 도전이 될 수 있다.

직업적 자격의 한계를 알기

그러므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민이라면 자신의 직업적 자격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알아야 한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민이나 사회복지사는 훈련받은 의사가 아니므로, 어느 때 의료적 또는 치료적 조언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대체로 사회적 농업 활동은 팀을 이루어 일하는 것을 뜻하며, 여러 분야가 함께 적용되는 접근방법에 바탕을 둔다. 농장에 돌봄이나 건강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와 참여시킴으로써 의료 측면의 능력을 추가시킬 수도 있다. 특별한 필요를 지닌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리고 사회복지의 일반적 방법을 깊게 이해함으로써, 참여자의 필요와 문화를 인식하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농민 스스로 그러한 지식을 갖지 못했다면, 다른 전문 분야 출신의 스태프가 이 공백을 채울 수도 있다.

스스로의 개인적 한계를 알기

그 밖에도, 사회적 농장의 농민이나 사회복지사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 한계를 알아야 한다. 새로

운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적 농업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특별한 필요를 지닌 사람들을 살피는 일에는 시간과 인내심과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일거리는 가족, 여타의 농업 활동, 여가를 누리고 싶은 개인의 희망사항 등에 또 다른 일거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소프트스킬³⁾ soft skill이 필요하고,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민은 자신의 농장으로 초대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에 진지하게 관심을 두어야 한다. 사회적 농업의 모델이 어떤 것이며 참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사회적 농업 실천 농민은 모두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내 일상생활과 농사일에 특별한 필요를 지닌 사람들을 참여시킬 만한 능력이 내게 있는가? 내 가족들은 아동이나 장애인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즐겁게 환영할 것인가? 특별한 필요를 지닌 누군가에게 농사를 훈련시킬 만큼의 인내심과 공감 능력이 내게 있는가? 사회적 농업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도전할 만한 시간과 에너지를 나는 충분히 갖고 있는가?

사회적 농업을 하려는 농민에게 특히 중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 ♠ 친절함, 공감능력, 사람들에 대한 관심
- ♠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농장과 집을 개방할 수 있는 의지
- ♠ 지역사회를 중시하는 강력한 의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
- ♠ 능력이 다른 사람들마다 각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하려는 활동을 주의 깊게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의 속도에 맞춰 일할 수 있는 인내심과 의지
- ♠ 차분하고 편안한 분위기
- ♠ 유머 감각
- ♠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방식을 바꿔보려는 의지, 유연성, 적응 능력
- ♠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참여자가 경험했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

(자료: Social Farming Ireland 홈페이지, <http://socialfarmingireland.ie>)

3) 모든 직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효과적인 의사소통, 관용, 신뢰할 수 있는 태도 등을 말한다.

4.4. 고정관념 버리기

참여자 집단에 따라서, 즉 참여자들의 필요나 장애에 따라서 사회적 농업의 긍정적 효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참여자 집단이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는 방식 또한 아주 다양할 수 있다. 농사 활동과 돌봄이나 교육 측면의 목표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모든 참여자에게 들어맞는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자아존중감을 끌어올리는 일이 필요한데, 그런 활동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그렇게 된다면 성취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종류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정교한 농작업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예: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 그러나 신체적으로는 너무 지치게 만들지 않는 텃밭 가꾸기 활동).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그 반대의 농작업이 좋을 수도 있다(힘든 신체 활동, 예를 들면 숲에서 목재를 다루는 작업, 신체적 피로를 가져오고 아드레날린을 ‘자연스럽게’ 방출하게 하는 활동). 예로 든 텃밭 가꾸기나 숲에서의 목재 작업처럼 농사에는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사람마다 제각기 다양하게 정해지는 목표에 따라 농작업 활동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절부터는 사회적 농업의 주요 참여자 집단들의 필요에 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흔한 참여자 집단들에 관한 단순한 개관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 사람과 그 사람의 필요를 이해하는 일은 이런 글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다. 인간 본성은 한 사람의 필요를 하나의 질병이나 장애로 환원시켜도 될 만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정신건강 문제나 장애가 있는 사람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고, 소망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자기 자신의 성격이 있고, 특별한 필요나 장애 그 자체와는 무관한 호오好惡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짧게 쓴 글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대해 고정관념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법칙일 수는 없다.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수확한 감자를 골라내는 일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반대인 경우도 자주 있다.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다양한 농작업을 통해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는 모든 집단에게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자면, 텃밭 가꾸기나 동물매개치료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많이 있다. 그러나 자폐 스펙트럼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이 동물을 좋아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회적 농업은 특별한 필요를 지닌 사람들을 돕거나 포용하기 위한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농업이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

있다. 모든 경우에 개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평가하는 일이 중요하다.

- 이 사람의 필요는 무엇이며, 사회적 농업이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아니면 돌봄, 아니면 치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 이 사람에게는 무슨 활동이 적합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농장의 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4.5. 지적장애인

지적 장애는 지적인 기능이 평균 이하인 상태이며 지능발달의 장애로 학습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을 받고, 적응행동의 장애로 관습의 습득과 학습에 장애가 있는 상태라고 정의된다.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묘사될 때가 자주 있다

- 우호적인 조건에서는 시간결정⁴⁾(temporal orientation)이 좋다.
- 상황 결정, 개인적 결정, 자기 평가 등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는데, 과대평가하거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가 자주 있다.
- 인지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단기 및 장기 기억에 장애가 있다.
- 부분적으로, 부분 기억이 아주 좋은 경우도 있다(예: 숫자에 대한 기억).
-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예: 소음에 쉽게 방해받는다).
- 정서에 장애가 있다(예: 무관심, 초조감, 정서 불안).
- 지적 능력이 불균형적이다(예: 한편으로는 지능에 결함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음악 영역에 특별한 능력이 있을 수 있다).
- 사고에 어려움이 있다. 감각 인상에 집착하거나, 생각이 느리다.
- 추상화 능력에 제한이 있다.
- 과도함(좋아하는 것에 전적으로 몰두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거부한다).
- 외양에 크게 의존한다(예: 머리 스타일, 제복 등)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농업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사회적 농업이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지적장애인에게 주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이 있다. 집에서 키운 농작물로 먹거리를 자급하는 것은, 주거를 제공하는 많은 사회적 농장에서 철학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캠프힐

4)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느 것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느냐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인지 활동의 개인적 차이를 말한다.

(camphill) 공동체가 그러한데, 주거에 이어 농사짓는 환경 안에서 교육훈련의 기회와 힐링 healing의 공간을 제공한다. 보호작업장도 농장에서 주거와 일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가족농도 지적 장애인을 초대하여, 가족의 일상과 날마다 이어지는 농사일에 그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유급 일자리를 포함하여,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지적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의 두 번째 핵심이다. 보호작업장이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가족농이든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정원 가꾸기를 포함시킬 수 있다. 농사에는 아주 다양한 농작업 과정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사람들 각자의 기술(skill)과 장애를 살펴보고 나면, 모든 사람들마다 각기 적절한 일을 찾을 기회가 많다.

끝으로, 사회적 농업은 치료와 재활을 제공할 수 있다. 동물매개치료나 원예치료는 이들 대상 집단을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주거, 일자리, 치료 중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든, 사회적 농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적장애인을 도울 수 있다. 그것은 언제나 사회적 포용의 방식이다. 사람들은 농장에서 소중한 일을 함으로써 자신이 쓸모가 있음을 느낀다. 그들은 식물이나 동물에 책임감을 갖게 된다. 의미 있는 활동은 자신감과 자기 발달을 돕는다.

‘Social Farming Ireland’⁵⁾는 여러 연구를 분석하여 지적장애인 정책의 핵심 가치가 사회적 농업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 그 같은 결과는 아일랜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지적장애인을 지원함에 있어 사회적 농업이 일반적으로 가져다줄 수 있는 파급효과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개인-중심: 사회적 농업은 개인들의 재능, 기술, 기여 등을 발견하고 평가하며 실현하는 일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고도로 개인화되어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에 중심을 둔다. 소수의 참여자와 사회적 농장의 농민이 참여자와 나란히 서서 돕고 일하는 일에 역점을 둬으로써 이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 존엄: 사회적 농업은 자주성을 실현할 유의미한 기회를 제공한다. ‘살아 있는’ 자연 환경 안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긍정적 의미의 위험risk를 감수할 기회를 제공한다.
- 임파워먼트empowerment: 사람들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사회적 농업을 선택할 자율권을 부여받으며, 어떤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해서 사회적 농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농장에 방문하면, 참여자는 다시 농장의 일상적인 활동에 관하여 선택권을 행사하고 의사결정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5)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과 그 확산을 돕는 기구이다.

- 사회적 포용: 참여자는 농민과 농가 가족들과 진정하고 의미 있는 관계와 우정을 쌓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사는 지역사회 안에서 다른 이들과도 새로운 연결을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새로운 연결은 사회 안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꾸도록 도전하며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한다.
- 독립성: 사회적 농업 참여자는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농장 활동에 농민과 함께 참여하도록 권한을 갖는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농장-기반 지원 모델이 참여자의 자신감, 독립생활 기술 및 능력 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 평등: 사회적 농업은 사람들이 농민 그리고 사회적 농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란히 농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 모델을 제공한다. 그리하여 농장은 아주 평등한 장소가 된다.
- 존중: 사회적 농업 참여자들은 어른으로 대우받는다. 그리고 참여자의 기여와 책임감이 성장하게 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 개인 발달과 성취: 사회적 농장은 실용 기술이나 농사 기술의 차원에서 참여자의 개인 발달에 기여하며, 독립 수준을 향상하고, 사회기술과 자신감을 계속해서 진화시킨다.
- 소중한 사회적 역할: 사회적 농장은 참여자가 의미 있고, 목적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평범한 활동에 참여할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적 농업은 참여자가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느낌을 증진시키며,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돕는다.
- 건강과 웰빙: 사회적 농업은 참여자가 일정 수준의 신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아주 의도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 가령, 상쾌한 공기를 마시러 실외로 나가거나, 주변 풍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간다. 그렇게 해서 신체적 강함과 민첩성의 향상을 가져온다. 동물이나 식물과 실제로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는 아주 긍정적이고 생활을 향상시키는 경험이다. 농장이 지닌 풍부한 감각적 환경이 신체 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가 심한 사람들에게 특히 소중한 기회가 된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민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존중하며 활력을 되찾게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아주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 장애인의 필요와 자주성에 호응해 행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참여자의 자기-소외와 타인에게 조종될 가능성을 낳게 될 것이다. 사회적 농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감과 동기 유발이 생겨나도록 자극받을 수 있다. 어느 참여자가 동물이나 식물에 끌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농민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농장의 농민은 동식물에 대한 그 같은 친밀감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 농업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지적장애인들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기도 하는데, 과정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반복적인 작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작업을 하고 또 하면서, 안정감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어떤 지적장애인은 그런 주제로부터 벗어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싸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다시 농작업 환경으로 데려와 작업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농사에서는 자유 시간과 농작업이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농장에서 일하는 참여자가 농사일을 다른 일터에서 발견하는 긍정적인 어떤 것에 연관시킨다는 점도 중요하다. 휴식 시간, 적절한 휴게 장소, 천천히 농작업할 수 있는 선택지 등도 중요하다. 어떤 장애인은 스스로 일을 끝마칠 수 없으며, 자신의 일을 하는 동안 농민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

4.6.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신장애로 인한 이상(abnormalities)은 감정, 생각,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 중에는 내면적인 문제로 인한 고통을 겪는 경우가 흔하다. 사회적 농업 참여자들 사이에 흔히 볼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공포/패닉(불안장애): 외부에서 오는 최소한의 위협에도, 또는 그런 위협이 없는데도 과도한, 과장된 패닉(panic) 반응이 나타난다.
- 경계선 성격 장애: 행동, 감정, 사고 수준에 영향을 주는 성격 장애. 이해하기 어렵고 역설적인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 충동적이고 불안정하면서도 강렬한 인간관계로, 급격한 기분 변화로, 자기-인식(self-perception)이나 자기-이미지(self-image)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 자해 행동, 내적 공허감, 분리 또는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 우울증(우울장애): 우울한 기분, 우울한 생각, 낮은 동기유발, 낮은 에너지, 행복감, 즐거운 느낌, 자신감, 성취감, 공감, 인생에 대한 관심 등이 아주 자주 사라진다. 즐거움과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그 밖에도 정신건강 문제로 정신증, 신경증, 성격 장애 등이 있다. 조현병이나 다중인격장애 따위를 예로 들 수 있다. 중독이나 번아웃(burnout)도 있다.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사회적 농업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감독, 함께 있음, 대화 등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농업 활동이 안정과 독립성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농업 활동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고립된 채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일과 휴식을 함께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공동체적인 분위기도 형성될 수 있다. 타인과의 연결은 핵심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함께 농작업하면서 생겨나는 부산물이다.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에게는 농작업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압박을 줄여줄 수도 있다.

그리고 신체 활동이 정신건강에도 중요하다. 이때 사회적 농업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체적으로 활동적일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하는 훌륭한 기회다. 농사에서, 신체적 활동은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식물이나 동물을 돌보는 활동의 일부분이다. 일과가 끝날 무렵에 신체적으로 피곤한 상태가 됨으로써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이 수면에 들도록 도움이 되고, 성취감을 제공할 수 있다. 그 경우, 식물이나 동물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이 큰 동기부여가 된다. 이러한 신체 활동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개인들이 다른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만들어주며, 책임감을 심어준다(나는 이 식물에 물을 주어야 하고, 이 동물에게 먹이를 주어야 한다. 그들은 내게 의존한다).

그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자연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일 수도 있다. 채소를 심거나 가축을 돌보는 활동에는 주의력과 집중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강도 높은 정신 작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종류의 활동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이 점이 특히 중요하다.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가 과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유형의 사회적 농업 참여자 집단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농업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직업적 자격을 취득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민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많은 경우에, 성과를 지향하는 압박이 느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은 정

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자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농장의 농민은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농작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일어나서 농장에 오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농민과 치료자(therapist) 또는 사회복지사 사이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농민은 농업 활동과 농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농작업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참여자에게 갈 수 있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개인에게 명확하게 책임을 부여함으로써(예: 특정 식물이나 동물에 대한 책임), 동기 유발을 촉진하고 그 개인에게 일정한 틀과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다.

4.7. 행동 장애 또는 특별한 필요를 지닌 청소년

행동 장애(behavioural disorder)가 있거나 특별한 필요를 지닌 청소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다양한 성격의 참여자 집단이다. 그중에는 보호 아동, 장애가 있는 젊은이,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젊은이, 행동 장애를 보이는 젊은이, 범죄 경력이 있는 청소년, 고립된 청소년[왕따] 등이 있다. 행동 장애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방해적인 행동 패턴을 말한다. 행동 장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수 있다.

- 주의력 결핍
- 과잉행동
- 충동적 행동
- 반항적 행동
- 약물 사용
- 범죄 행동

최근 여러 해 동안 사회의 분화와 사회적 배제로 인해 과거보다 더욱 많은 사회적 도전에 직면했다. 이런 변화는 청년 실업 증가, 높은 아동 빈곤율, 취업 전환 과정의 어려움, 청소년 폭력, 청소년의 외국인 적대감,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많은 중독(약물, 알콜, 소비, 도박) 등의 문제로 드러난다. 이 같은 문제에 직면한 젊은이들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젊은이들의 행동은 일반성, 사회 규범, 가치 등과 부딪힌다. 행동 문제가 있는 젊은이들은 가정 상황(다툼, 공격, 도망 행동), 학교 또는 일터의 상황(학교나 직장에 가기를 꺼리는 것),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기, 여가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약물, 범죄) 등의 상황에 갇혀 있다.

사회적 농업은 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은 교육이나 돌봄에 중점을 둔다. 젊은이는 농장에서 오랜 기간(예: 위탁 양육, 인턴십, 특별교육 프로그램 등) 생활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으로 참여하여 특별 프로젝트를 일정 기간 진행할 수도 있다. 많은 경우, 사회적 농장은 힘겨운 상황에 놓인 젊은이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다른 문제 청소년과 접촉하지 않으므로 갈등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 젊은이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환경에서 멀어지게 되므로, 잘못된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적다.

농촌이나 가족 농장에서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안정시키고 생활을 구조화할 수 있다. 주변에는 항상 농민이 있고,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시설에서는 직원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많다.

의미 있는 일과 즐거운 작업은 많은 젊은이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간다. 농업에서 이루어지는 신체로 쓰는 작업은 과거의 삶이나 학교에서는 필요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가 된다. 농작물을 수확하거나 트랙터를 타는 등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스스로에 대해 더 많이 신뢰하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된다. 동시에 육체적인 작업이 분노나 공격성을 느끼는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농작업은 그런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실용적인 작업은 이론적인 교육을 싫어하는 많은 청소년을 끌어들이는다.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을 다른 관심사를 일깨워준다. 이는 청소년 범죄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책임감을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등 개인적 한계 수준을 높일 수 있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민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행동 문제가 있는 젊은이 또는 폭력과 학대를 경험한 젊은이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들 참여자와 함께 일하는 사회적 농장의 농민이 그들로부터 분노, 공격성, 우울감 등의 감정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감정과 행동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공감과 자기주장이 필요하다. 사회적 농장의 농민이 취약한 젊은이와 함께 일할 때는 소속감, 정신적 외상, 교육학, 정서적 거리두기, 친밀감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려면 특별한 구조가 필요하다. 농업 활동이 다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젊은이들의 흥미를 끌고, 그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도움과 돌봄을 보장하려면 사회복지 및 교육학 전문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아동과 함께하는 경우에는 그런 조건이 법률에 따라 필수사항이 될 수도 있다.

4.8. 노인

노인들은 아주 다양한 참여자 집단이다. 어떤 노인은 노화를 잘 견디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늙어가면서 질병도 증가한다. 나이와 관련된 전형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 노인 우울증: 일반적인 우울증과는 달리, 연령과 관련된 우울증은 신체적 불편감, 이상한 행동 및 치매 증상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 치매: 치매는 기억력, 실행 기능, 주의력, 언어, 사회적 인지 및 판단, 심리 운동 속도, 시각-지각 또는 시각 공간 능력 등 2개 이상의 인지 영역에서 이전 수준과 비교해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는 후천성 뇌 증후군이다. 이러한 인지 손상은 완전히 정상적인 노화의 탓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독립적 활동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치매의 주요 증상은 기억력 장애다. 단기 기억력과 기억력 보존 능력 손상이 초기 증상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증상으로는 방향감각 손상이 있다. 이 병의 진행에 따라 장기 기억에 근거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손상된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질환도 늘어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심근경색
- 뇌졸중
- 관절염
- 당뇨병
- 요실금

사회적 농업은 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노인과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고립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될 수도 있고, 농장에서의 경험이 어린 시절의 좋은 기억과 연결될 수도 있다. 노인을 위한 사회적 농업 기획은 농장에서 제공하는 노인 전용 주거 및 여가 활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어떤 노인들은 시골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한다. 그들은 자연과 연결되어 요리, 벌목, 텃밭이나 정원 가꾸기, 동물 돌보기 등의 활동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회적 농장은 돌봄이나 치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정원 가꾸기 치료 및 동물 매개 치료를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똥 치우기, 동물 먹이 주기, 잡초 제거 등 농장에서의

활동은 노인들이 체력을 유지하면서 신체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들은 신체적 활동의 동기를 얻게 된다.

특히 치매를 앓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농업이 미치는 혜택에 대해 강조하는 네덜란드 연구가 있다. 노인 그룹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네덜란드의 한 연구에 따르면 녹색돌봄(green care) 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치매 환자들은 일반적인 주간보호시설을 찾는 사람들보다 더 자주 사회활동에 참여한다. 의미 있는 활동이 그들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하였고, 그들은 무언가에 기여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정기적인 주간보호시설 및 사회적 농업 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과 여가 활동을 가능해졌다. 게다가, 치매 환자들을 위한 농장이 유급 일자리 또는 자원봉사 활동 기회도 제공한다. 이 관점에서, 사회적 농업은 사회 참여의 다양한 방식을 제공한다. 그리고 치매 환자들이 농장에 머물면서 먹거리와 음료에 신경을 쓰도록 자극 받는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민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연령에 맞게 활동을 계획해야 한다. 사회적 농장과 사회적 농업 활동 모두를 노인의 필요와 전형적인 연령 관련 문제들(예: 청각 및 시각 능력 손상, 이동의 어려움, 치매)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 사회적 농업 모델에 따라서는 보건기관이나 응급 서비스 기관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농장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 시설(세탁 서비스, 시설 관리 등)을 제공할 수도 있다.

4.9. 아동

아동을 사회적 농업에 참여시키는 방법은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특별한 필요를 지닌 아동(예: 발달장애 아동)보다는 학교 교실 및 농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교육적 활동으로서의 사회적 농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학교 수업은 주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며, 지식은 주로 이론적으로 전달된다. 아동들은 대부분 무언가에 관해 듣거나 읽어서 배우는 것이지 체험으로 배우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아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은 기후 변화, 산업화된 농업 등의 추세 속에서 혁신적인 접근방법이다. 지속가능성, 동물 복지, 기후 변화, 먹거리의 가치 등과 같은 문제를 사회적 농장에서 농민과 함께 토론할 수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아동 교육을 추구하는 사회적 농장은 손을 더럽히고 모든 감각을 사용하는 등의 실생활 경험에 바탕을 둔다는 점에 있다. 사회적 농장에서는 수확, 농산물 가공, 동물 돌보기 등의 영농 활동에 아동들이 참여하게 된다. 어린이들은 대부분 자연에 호기심이 있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를 좋아하며, 살아 있는 모든 것과 강한 연결을 지닌다.

사회적 농장은 수업의 강도, 아동의 연령과 수, 계절, 농장이 중점을 두는 부분 등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학교에 제안할 수 있다. 사회적 농장에서 키우는 특정 작물이나 동물에 대한 학습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농장에 간단한 일회성 방문 위주로, 아니면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방문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도 있다.



Farm pedagogics. Author: Heilpädagogisch-Künstlerisches Therapeutikum Chemnitz e.V.

사회적 농업이 아동 교육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학교 수업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사회적 농업은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농장에 바탕을 둔 제대로 된 교육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실에서의 이론적 학습이 실제 농장에서의 실천적 학습으로 대체된다. 다른 종류의 사회적 농업 활동과 비교할 때, 이 경우의 주된 목표는 포용이나 치료가 아니라 교육이다. 아동들은 먹거리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경험하고, 작물 재배와 먹거리 생산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배우며, 농민이 고려해야 할 사항(예: 토양가꾸기, 기후, 경제적 요인)과 농민의 걱정(예: 질병, 해충)에 대해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농업에서는 팀을 이루어 일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도록 장려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다. 동물을 돌보거나 식물을 가꾸는 방법을 배우으로써, 사회적 기술, 배려, 공감 능력 등을 훈련할 수 있다. 한계, 두려움, 저항 따위를 낮출 수도 있다. 때로는 아동들이 자신의 신체적 한계에 도전할 수도 있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민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사회적 농업은 환경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민은 자신의 농장에 적합한 개념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일상적인 영농활동과 조화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아동 및 청소년의 필요에 맞추려면 교육학적 기술(pedagogical skill)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농민은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야 하며, 학생의 관심이나 교육과정에 농장에서의 교육을 연

결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아동과 함께 활동할 때에는 특별한 건강 및 안전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도구와 작업이 아동에게 적합한지를 알아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농장의 동물이 무리를 이루어 찾아오는 아동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는 아동과 동물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아동은, 특히 여럿이 모이면 시끄럽고 소란해질 수 있다.

사회적농업 활동 참여자의 특별한 필요 II

유수상 대표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복지재단)

중급1 교육

사회적 농업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참여자의 특별한 필요 (연습)

|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복지재단
| 대표이사 유수상



이번 실습의 학습 목표

다음 세 가지 핵심 역량을 함께 키워갑니다. 각 목표를 확인하고 오늘 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1

참여자 특성 이해

장애인, 아동, 노인 등 특별한 필요를 지닌 다양한 참여자들의 특성과 그들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2

개별화된 활동 계획 수립

각 참여자의 특성에 맞춰 농작업 활동의 난이도, 방식, 목표를 조절하고 개별화된 활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전문가 협력 태도 형성

농업인 스스로 개인적 한계를 인식하고, 의료적·치료적 조언이 필요한 상황을 구별하여 전문가와 협력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CHAPTER 01

그룹 구성 및 역할 정하기

본격적인 실습에 앞서, 효과적인 팀 활동을 위해 모둠을 구성하고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회의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1. 모둠 구성하기

오늘 실습은 세 개의 모둠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각 모듬은 특정 참여자 집단의 특성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논의하게 됩니다.

1조 장애인

장애 유형별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
활동 지원 방법 탐구

2조 노인

노화에 따른 신체·인지 변화와 농장
활동 적응 방안 탐구

3조 아동·청년

발달 단계별 특성과 성장 지원 중심
의 농장 활동 탐구

2. 역할 정하기

각 모둠에서 다음 네 가지 역할을 정해주세요. 역할은 논의가 민주적으로 진행되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장

회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원활한 진행을 돕습니다. 아이디어를 판단하는 발언이나 발언권 독점에 주의를 줍니다.

서기

도출된 아이디어를 분류·정리합니다. 비슷한 유형은 하나로 묶고, 논의 결과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발표자

정리된 내용을 정해진 시간 내에 발표합니다. 발표를 위해 사전에 논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합니다.

시간 관리자

시간 내에 논의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시간을 관리하고 팀원에게 알립니다.

CHAPTER 02

상호 관계 형성하기

사회적 농업의 출발점은 **관계**입니다.

참여자와 농업인 사이의 신뢰로운 관계는 치유와 성장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실천을 준비합니다.



상호 관계 형성하기 ① — 나를 소개하는 키워드 3

실습 주제

저를 소개합니다

나를 대표하는 키워드 3개를 포스트잇에 작성하고, 이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을 소개합니다.

실습 방법

- 포스트잇에 나를 대표하는 키워드 3개를 작성합니다.
- 키워드를 활용하여 모둠원들에게 나를 소개합니다.
- 서로의 키워드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눕니다.

예시: #로컬푸드 #사회적경제 #사회적농업

☐ 키워드는 직업, 가치관, 취미, 농업에 대한 생각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솔직하고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상호 관계 형성하기 ② — 상호 인터뷰

주제: 참여자를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1 우리 농장에는 누가 오는가?

연령, 성별, 장애 유형, 감정 상태 등 참여자의 다양한 특성을 생각해봅니다.

3 농장에 오는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웃, 손님, 체험자, 고객, 친구 — 우리가 맺는 관계의 성격이 활동의 질을 결정합니다.

2 나는 참여자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대상자", "이용자", "OO님", "OO씨", "어르신" — 호칭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4 참여자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선생, 농장주, 이웃, 아는 어른 — 참여자 입장에서 나의 역할을 돌아봅니다.

상호 관계 형성하기 ③ — 상호 인터뷰

주제 : 우리 농장은 어떤 곳이 되고 싶은가?

참여자에게 어떤 인상을 줄까?

"일하는 곳", "쉬는 곳", "배우는 곳" — 농장의 첫인상이 참여자의 경험을 형성합니다.

참여자는 무엇을 기대할까?

참여자가 농장에 오기 전부터 갖는 기대와 바람은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어떤 경험을 주고 있을까?

성취, 실패, 재미, 긴장, 배움, 위로 — 농장이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경험을 점검합니다.

앞으로 어떤 경험을 주고 싶은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경험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경험을 만들어가고 싶은지 나눕니다.

CHAPTER 03

사전 학습 이해

이전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함께 되짚고, 실제 현장 경험과 연결해 봅니다. 실수와 고민을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입니다.





같이 묻고 대답하기!

나는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면서, 이런 실수를 했다!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이나 당황스러운 순간을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실수는 배움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여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상황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 ③ 서로의 경험을 판단하지 않고 경청합니다.
모든 경험은 소중한 학습 자산입니다.

상황별 의사소통 연습 #1

△ 상황 #1 — 분노 조절이 어려운 청소년 참여자

사회적 농장에 참여하는 한 청소년은 육체적인 농작업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기친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

📍 생각해봅시다 ①

이 청소년의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어떤 농작업 활동을 제안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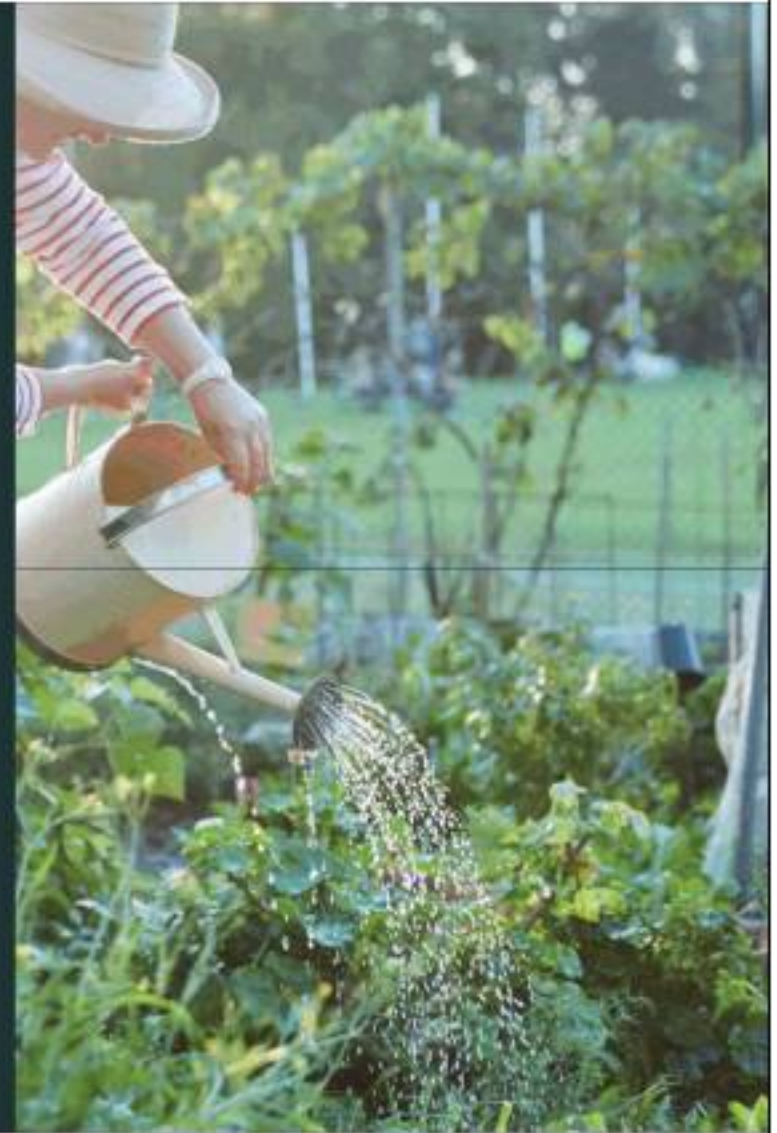
📍 생각해봅시다 ②

기친 행동이 나타났을 때, 농업인으로서 어떻게 침착하게 대처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생각해봅시다.

사회적농업 돌봄농장에서 분노 조절이 어려운 청소년 참여자 대응방안

사회적농업 돌봄농장은 단순한 체험장이 아니라, 관계와 일상을 통해 사람을 회복시키는 공간입니다. 특히 분노 조절이 어려운 청소년의 경우 "통제"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관계와 감정의 회복'입니다. 농장은 경쟁과 평가 중심의 학교 환경과 달리 몸을 움직이고 자연과 교감하며 감정을 안정시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 체계를 갖추면 매우 효과적인 돌봄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아래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단계별 대응 매뉴얼입니다.



1단계 : 사전 준비 단계

☞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준비

① 참여 전 기초 정보 파악
청소년의 특성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 분노 폭발 상황의 특징
- 자극 요인 (놀림, 지시, 무시당함 등)
- 보호자 및 학교 의견
- 복용 약물 여부
- 위험 행동 이력
- 안정되는 활동이 무엇인지

☐ 특히 "무엇을 싫어하는가"보다 "어떤 상황에서 안정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농장 내 안전 규칙 설정

규칙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사람을 때리지 않는다

위험 도구는 허락 후 사용

화가 나면 잠시 쉬어도 된다

욕설보다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

☑ "처벌 규칙"이 아니라 "함께 안전하기 위한 약속"이어야 합니다.

③ 역할 있는 활동 배치

분노가 많은 청소년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감각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너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경험이 감정 안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 동물 먹이주기 / 텃밭 관리 책임
- 수확 담당 / 물주기 리더
- 농기구 정리

2단계 : 초기 징후 발견 단계

⇒ "폭발 직전"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기

분노는 갑자기 터지는 것 같지만 대부분 전조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계"가 아니라 "거리 조절"입니다.

주요 신호

 말수 급감	 표정이 굳음
 손발 세게 움직임	 욕설 증가
 주변 자극에 예민	 혼자 멀어지려 함

피해야 할 행동

- "뭐 그러는데?" / "진정해!" / "그만 좀 해라"
-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개입
- 공개적인 지적

이런 방식은 청소년이 공격받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권장 대응 — 짧고 안정적인 언어 사용

| "지금 많이 불편한 것 같네."

| "잠깐 같이 걸을까?"

| "쉬었다가 다시 해도 괜찮아."

| "혼자 있을 시간 필요하니?"

☑ 핵심은 감정을 인정하되 행동은 안전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3단계 : 분노 폭발 단계

⇒ "가만"보다 "안전 확보"

청소년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상황에서는 교육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1	주변 참여자 분리 다른 청소년들을 안전한 거리로 이동시킵니다. 군중 반응은 흥분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2	최소 인원만 대응 여러 명이 둘러싸면 위협으로 느낍니다. 신뢰관계 있는 담당자 1명이 중심이 됩니다.
3	신체 접촉 최소화 억지 제압은 역효과가 큼니다. 위험 상황이 아니라면 붙잡지 않기, 밀지 않기, 팔 잡아끌지 않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공간 이동 활용 산책 공간, 비닐하우스, 동물 돌봄 공간, 조용한 쉼터 등 농장의 자연 환경을 활용합니다.
5	짧고 단순한 말 사용 흥분 상태에서는 긴 설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긴 안전해." "천천히 숨 쉬자."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릴게."

4단계 : 안정 회복 단계

"존네기"보다 "되돌아보기"

감정이 진정된 직후 가장 위험한 것은 즉각적인 **훈계**입니다. 청소년은 이미 수치심, 후회, 방어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 대화 방법 — 질문 예시

- "무엇이 가장 힘들었어?"
감정의 원인을 함께 탐색합니다.
- "어느 순간 화가 커졌을까?"
자기 인식을 돕는 질문입니다.
-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래 지향적 대화로 전환합니다.
-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뭘까?"
함께 해결하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 중요한 것은 "왜 그랬나"보다 "다음엔 어떻게 할까"입니다.

5단계 : 지속 지원 단계

○ 반복 예방 구조 만들기

분노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대부분 관계 경험과 스트레스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회복 구조가 필요합니다.



① 반복적 신체 활동

- 밭일 / 물주기 / 풀 뽑기
- 장작 나르기

단순 반복 노동은 감정 안정에 도움됩니다.



② 동물 매개 활동

동물은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정서 안정 효과가 큼니다. 닭, 토끼, 염소, 강아지 등은 청소년과 관계 형성이 쉽습니다.



③ 감정 표현 활동 병행

- 감정일기 / 그림 / 사진
- 작물 성장 기록
- 수확 소감 나누기

말로 표현 어려운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6단계 : 위기 대응 체계 구축

※ 농성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기

- 1. 즉시 연계 필요 상황
- 2. 자해 시도
- 3. 반복적 폭력
- 4. 흉기 사용 위험
- 5. 심한 우울·환청
- 6. 학대 의심
- 7. 중독 문제

연계 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Wee센터



사례관리기관



보호자

⚠ 사회적농업은 치료기관이 아니라 "회복적 관계 공간"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의 핵심 원칙 정리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문제행동보다 관계를 본다

"왜 저러지?"보다 "무엇이 힘든 걸까?"를 먼저 본다.

② 통제보다 안전

억누르기보다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③ 역할과 존중 제공

청소년은 훈계보다 "필요한 존재"라는 경험 속에서 변화한다.



마무리

돌봄농장은 청소년을 "교정"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시 관계를 배워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분노가 많은 아이들일수록 사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안전한 관계를 원하지만 표현 방법이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휴을 만지고, 생명을 돌보고, 함께 일하는 경험은 그 자체로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6

단계별 대응

사전 준비부터 위기 대응까지 체계적인 매뉴얼

3

핵심 원칙

관계, 안전, 역할과 존중

1

농장의 힘
사람을 기다려주는 힘

☑ 사회적농업의 힘은 결국 작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려주는 힘'에 있습니다.

상황별 의사소통 연습 #2

△ 상황 #2 — 감각 민감성이 있는 자폐스펙트럼 아동 '준이'

새로운 참여자인 자폐스펙트럼 아동 '준이'는 텃밭에서 갑자기 울리는 경운기 소리에 귀를 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참여자들은 당황하여 준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 즉각적 대응

당신이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준이와 다른 참여자들을 동시에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까요?

💡 환경 조정 계획

준이의 감각 민감성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농장 환경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소리, 공간, 일과 구조 등을 생각해봅니다.



감각 민감성이 있는 자폐스펙트럼 아동 '준이' 대응 매뉴얼

자폐스펙트럼 아동은 낯선 환경과 갑작스러운 감각 자극(소리·빛·냄새·접촉 등)에 매우 민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운기 소리처럼 크고 예측되지 않은 소음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신체 전체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진정시키지 않기
강요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감각 자극 줄이기
환경 조절이 최우선입니다

안전감 회복 돕기
아이가 스스로 안정될 수 있도록

참여자 반응 조절하기
주변 환경 전체를 함께 관리합니다



1단계 : 즉각적인 안전 확보

'왜 그래?'보다 먼저 환경을 안정시킨다

준이가 귀를 막고 주저앉았다는 것은 이미 감각 과부하 상태일 가능성이 큼니다. 이 때는 대화보다 환경 조절이 우선입니다.

① 경운기 소리와 거리 확보

가능하면 경운기 작업을 잠시 멈추거나 준이를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 비닐하우스 안
- 쉼터 또는 나무 그늘
- 실내 휴게공간

① 핵심은 '자극 감소'입니다.

② 주변 참여자 시선 분산

다른 아이들이 계속 쳐다보면 준이는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참여자들에게는 함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준이가 지금 소리에 많이 놀랐어요.'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먼저 물 주러 가볼까?'

-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기
- '문제 행동'처럼 만들지 않기
- 자연스럽게 분위기 전환하기

2단계 : 감정 안정 단계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감각 과부하 상태에서는 언어 이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긴 설명, 질문 공세, 반복적인 지시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① 낮고 안정된 목소리 사용

짧고 예측 가능한 말을 합니다.

| '괜찮아.' · '시끄러웠지.' · '여기 조용해.' · '천천히 쉬자.'

② 억지 접촉 금지

갑자기 손 잡기, 안아주기, 어깨 만지기를 하면 더 놀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이 반응을 먼저 봅니다.

③ 감각 안정 도구 활용

사회적응업 현장에서는 "안정 바구니"를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 소음 차단 헤드폰 · 모자 · 담요
- 좋아하는 물건 · 작은 인형 · 물병



3단계 : 회복 기다리기

'빨리 일어나'를 하지 않는다

준이는 지금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몸과 감각이 압도된 상태입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다 큰 애가 왜 그래?' · '괜찮다니까?'
- '울지 마.' · '다들 보잖아.'
- 억지로 활동 복귀시키기

⊕ 이런 반응은 수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행동

- 옆에서 조용히 기다리기
- 시선 강요하지 않기
- 숨 고를 시간 주기
- 선택권 주기: '좀 더 쉴래?' · '물 마실까?' · '준비되면 이야기해 줘.'



4단계 : 활동 재참여 단계

다시 참여할 수 있는 "다리" 만들기

안정된 뒤 바로 단체 활동에 넣으면 다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천히 연결해야 합니다.



물 주기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활동으로 시작합니다.



토마토 따기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씨앗 담기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작업이 효과적입니다.



닭 먹이 담기

작은 역할도 소중한 성공 경험이 됩니다.

☺ '준이가 도와줘서 고마워.' - "물 준 덕분에 잘 자라겠다." — 자폐스펙트럼 아동은 예측 가능성과 안정감 속에서 참여가 늘어납니다.

5단계 : 사후 기록과 환경 조정

"준이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조정"

돌봄농장은 아동을 바꾸는 곳이 아니라 환경을 조율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이후 맞춤 돌봄에 매우 중요합니다.

1 어떤 소리였는가
자극의 종류와 강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2 얼마나 갑작스러웠는가
예고 없이 발생한 자극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회복까지 걸린 시간
안정 회복에 소요된 시간을 기록합니다.

4 안정에 도움이 된 요소
효과적이었던 도구, 공간, 말 등을 기록합니다.

5 싫어했던 대응
역효과를 낸 반응이나 행동을 기록합니다.

6 좋아했던 공간
안정감을 느낀 장소를 파악해 둡니다.

6단계 : 예방 체계 만들기

다음에는 미리 준비한다

자폐스펙트럼 아동은 '예고된 변화'에는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① 활동 전 미리 설명

'조금 있다가 경운기 소리가 날 수 있어.'
'시끄러우면 헤드폰 써도 괜찮아.'



② 시각자료 활용

사진 일정표, 그림 카드, 활동 순서
판을 사용하면 안정감이 커집니다.



③ 조용한 공간 상시 마련

농장 안에 작은 쉼터, 텐트, 조용한 의자 공간 등을 마련하면 도움이 됩니다.



돌봄농장의 핵심 태도

중요한 것은 "적응시키기"가 아닙니다.

자폐스펙트럼 아동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나지 않는 경험
실수와 반응이 수용되는 환경



안전한 감각 환경
자극이 조절된 편안한 공간



예측 가능한 관계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어른



기다려주는 어른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주는 돌봄

현장에서 꼭 기억할 문장

"문제행동"이 아니라 "도움 요청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준이가 귀를 막고 주저앉은 것은 떼쓰거나 고집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라는 몸의 표현일 가능성이 큼니다.

사회적농업의 역할은 그 신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받아주고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01

즉각적인 안전 확보 / 환경 조절 최우선

02

감정 안정 단계 / 짧고 조용한 언어 사용

03

회복 기다리기 / 선택권과 시간 제공

04

활동 재참여 / 단계적 연결과 성공 경험

05

기록 및 예방 / 환경 조정과 체계 구축



☑ 돌봄농장은 아동을 바꾸는 곳이 아니라 환경을 조율하는 공간입니다. 그 신호를 안전하게 받아주세요.

여기로 입장하세요



상황별 의사소통 연습 #3

△ 상황 #3 — '학습된 무기력'을 보이는 지적장애인 '민수' 씨

지적장애를 가진 '민수' 씨는 새로운 농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못해요"라며 미리 포기하려 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포기 패턴은 '학습된 무기력'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 활동 제시 방법

민수 씨가 도전해볼 수 있다고 느끼도록 활동을 어떻게 나누고 제시할 수 있을까요? 단계적 접근법을 생각해봅니다.

💡 목표 설정 방식

민수 씨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목표는 어떤 종류여야 할까요?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방법을 논의합니다.

상황 #3 — '학습된 무기력'을 보이는 지적장애인 '민수' 씨 대응 매뉴얼

"나는 못해요."

이 말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의욕 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이 반복적인 실패, 지적, 비교, 보호 중심의 환경을 오래 경험하면 스스로 시도하기 전에 이미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흔히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 ☉ 사회적농업 돌봄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공 경험을 반복해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1단계 : 먼저 태도를 바꾼다

· 왜 이렇게 의욕이 없어요? 라고 보지 않기

민수 씨의 "못해요"는 실제 능력 부족보다 다음과 같은 이유일 가능성이 큼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반복된 실패 경험이 새로운 시도를 막습니다.

혼날까 하는 불안

지적받은 기억이 행동을 위축시킵니다.

실수에 대한 수치심

실수가 자신을 정의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비교당한 경험

타인과의 비교가 자존감을 낮춥니다.

④ 따라서 먼저 지원자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피해야 할 반응 vs. 필요한 기본 태도

하지 말아야 할 말

- "해보지도 않고 왜 그래요?"
- "의지가 문제예요."
- "다른 사람은 하는데?"
- "자꾸 그러면 안 돼요."
- "할 수 있다니까!"

⊗ 이런 말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원칙

- 실패보다 시도를 인정하기
- 속도보다 경험을 존중하기
- 결과보다 참여 자체를 의미 있게 보기

⊙ 사회적농업은 "성과 경쟁"이 아니라
"관계 속 회복"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2단계 : 과제를 아주 작게 나눈다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너무 큰 일"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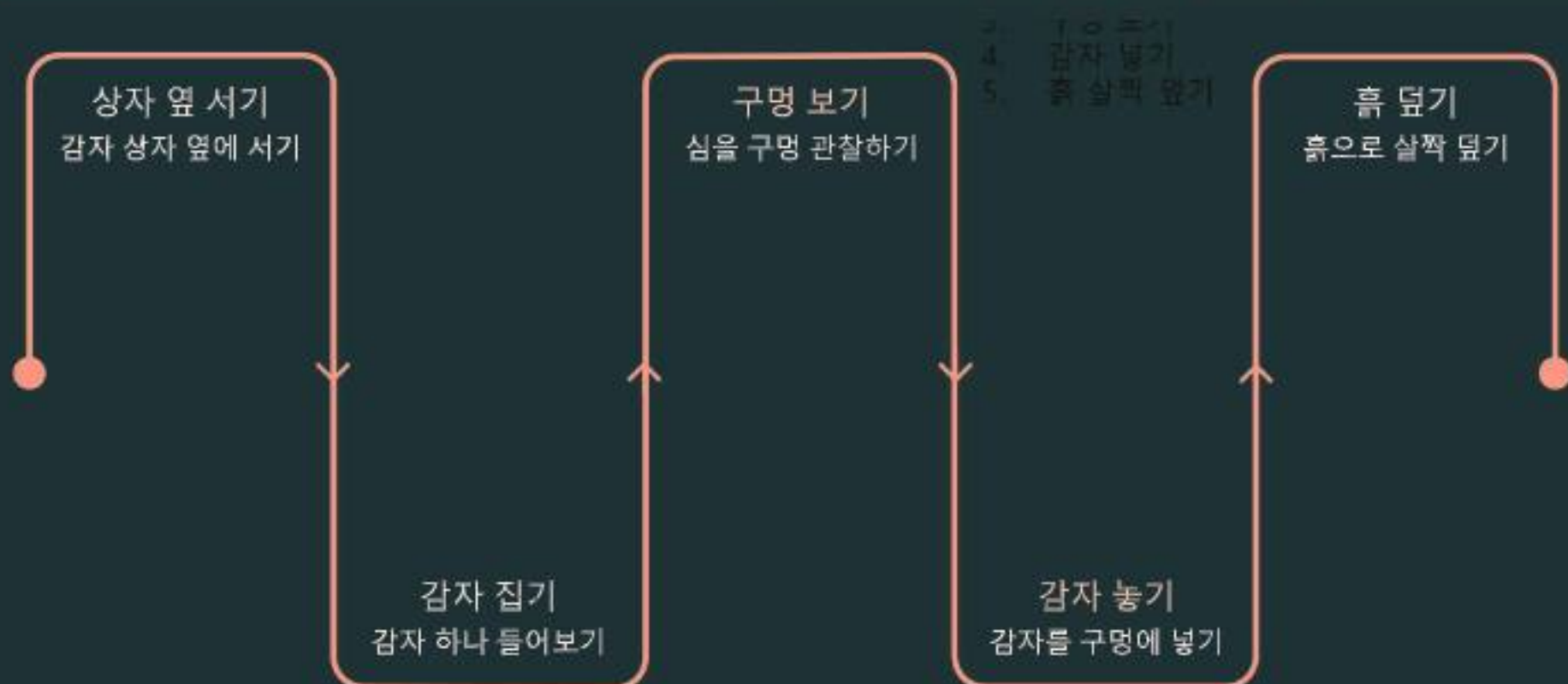
무기력이 있는 참여자는 시작 자체를 두려워하고, 한 번에 많은 요구가 들어오면 포기합니다. 따라서 작업을 **아주 작은 단계로 쪼개야** 합니다.

- 1 시작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첫 발걸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시작의 문턱을 낮춰주세요.
- 2 한 번에 많은 요구가 들어오면 포기합니다
복잡한 지시는 압도감을 줍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요청하세요.
- 3 작업을 아주 작은 단계로 쪼개야 합니다
각 단계가 성공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세분화하세요.

예시 : 감자 심기 활동

□ **가끔 방식**

◦ ".감자 심어보세요." → 너무 막연하고 부담 큼



이렇게 "할 수 있는 경험"을 반복하게 합니다.



3단계 : 즉각적인 성공 경험 제공

'결과 평가'보다 '성공 감각' 만들기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서는 성취감 경험 자체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아주 작은 행동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각적인 인정

행동이 일어난 직후 바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칭찬

'잘했어요'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말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의미 부여

그 행동이 전체 작업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효과적인 피드백 방법

피해아 할 방식

- '원래 쉬운 거야.'
- '이 정도는 해야지.'
- 결과만 평가하기

⊗ 이런 반응은 성취감을 무너뜨립니다.

○ 추천 방식 — 구체적으로 인정하기

- '혼자 감자 넣었네.'
- '끝까지 해봤네.'
- '아까보다 빨라졌네.'
- '도와줘서 작업이 잘 됐어.'

⊙ 핵심은: '당신의 행동이 의미 있었다'는 경험입니다.



4단계 : 선택권 제공

무기력한 사람일수록 통제감 회복이 중요하다

계속 지시만 받으면 더 수동적이 되고 실패 회피가 심해 집니다. 따라서 **작은 선택권을 자주 줍니다.**

활동 순서 선택

"물 주기 먼저 할래, 상추 담기 먼저 할래?"

도구 선택

"큰 삽 쓸래, 작은 삽 쓸래?"

방식 선택

"혼자 할래, 같이 할래?"

① 선택 자체가: 나는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회복시킵니다.

5단계 : 비교하지 않는 환경 만들기

Ⓢ 가장 위험한 것은 비교 경험 — 학습된 무기력은 비교 속에서 더 심해 집니다.

빨리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지시 잘 따르는 사람과 비교되면 참여 의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교 구조의 문제

- 빠른 사람과 비교 → 위축
- 잘하는 사람과 비교 → 포기
- 획일적 역할 배분 → 실패 반복

○ 역할 다양화 예시

- 빠른 사람은 수확 담당
- 민수 씨는 분류 담당
- 누군가는 물 주기 담당

Ⓢ '다르게 기여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각자의 속도를 인정하고 경쟁 구조를 최소화하세요.

6단계 :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 경험 제공

회복은 역할에서 시작된다

무기력이 심한 참여자는 대부분 "나는 늘 도움만 받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강합니다. 따라서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책임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씨앗 나눠주기



장갑 정리



물통 채우기



닭 먹이 전달



수확물 담기

☺ 그리고 반드시 역할 의미를 알려줍니다: "민수 씨 덕분에 일이 빨리 끝났어요." / "오늘 중요한 역할 맡아줬네."

7단계 : 실패 경험을 안전하게 만들기

학습된 무기력은 "실수하면 혼난다"는 기억과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나쁜 반응

- "또 틀렸네."
-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 이런 반응은 실패를 "끝"으로 느끼게 합니다.

○ 좋은 반응

- "괜찮아요, 다시 해보면 돼요."
- "처음엔 다 어려워요."
- "같이 한번 해볼까요?"

☺ 핵심은: 실패를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8단계 : 반복과 예측 가능성 제공

불안이 줄어야 시도가 늘어난다

지적장애 참여자는 익숙한 구조, 반복되는 순서, 예측 가능한 활동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활동 순서 고정

매일 같은 순서로 활동을 진행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림 일정표 사용

시각적 일정표로 다음에 무엇을 할지 미리 알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역할 반복

익숙한 역할에서 자신감이 쌓입니다.

익숙한 도구 사용

새로운 도구보다 익숙한 도구가 시도를 쉽게 만듭니다.

④ 반복은 단순함이 아니라 '자신감의 토대'가 됩니다.

현장의 핵심 원칙 정리

- ② 민수 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다고 느껴지게 하는 환경'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이 반복되면 사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작은 성공

어주 작은 성취도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기다려주는 관계

서두르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의미 있는 역할

기여하는 경험이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안전한 실패 경험

실수해도 괜찮은 환경이 도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무리

돌봄농장에서의 목표는 민수 씨를 '유능한 노동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다음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 
해보려고 하고
 시도 자체가 용기입니다.
 - 
참여하려 하고
 함께하는 경험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 
관계 안으로 들어오고
 연결감이 무기력을 녹입니다.
 - 
"나도 할 수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도록
 이것이 사회적농업 돌봄의 본질입니다.
- ☑ 그것이 사회적농업 돌봄의 본질입니다.



학습 내용 정리하기

모듈별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키워드를 추출하고 공유합니다.

단계	핵심 활동	세부 활동 내용
1	개별 키워드 기록	사회적 농업 참여자와의 의사소통 및 특별한 필요에서 기억나는 핵심 단어를 각각 포스트잇에 기록합니다.
2	모듈별 공유 및 분류	각자 기록한 키워드를 설명하고, 주제별로 분류하여 게시합니다.
3	내용 확인 및 추가	분류된 키워드를 함께 보며 이해를 공유하고, 누락된 내용을 확인하여 추가합니다.
4	주요 점검 요소 선정	주제별로 사회적 농업 실천 시 점검해야 할 주요 요소들을 키워드 형태로 최종 선정합니다.
5	전체 공유 및 최종 통합	모듈별 발표를 통해 선정된 키워드를 전체가 공유하고, 중복되는 키워드는 통합하여 공동의 최종 키워드를 확정합니다.

CHAPTER 04

참여자 이해하기

사회적 농업의 핵심은 참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페르소나 기법과 필요(Needs) 분석을 통해 개별화된 지원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페르소나 — 가상의 인물을 그려보기

페르소나란?

'가면'이라는 그리스 어원에서 온 단어로, **가상의 인물**을 구체화해 보는 기법입니다. 가상의 인물 A씨의 나이, 성격, 특징 등을 상세히 묘사하여 상대방의 특성을 자세히 살피고, 그 사람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지원 방법을 구현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우리 농장에 오시는 ○○○님

- 나이 및 성별
- 하는 일 / 생활 환경
- 건강 상태 및 못 먹는 음식
- 관심사와 고민
-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
- 장기적으로 원하는 것

□ 구체적으로 묘사할수록 더 적합한 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 사람의 필요(Needs) 파악하기

참여자를 이해했다면, 이제 그 사람에게 사회적 농업이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이 사람의 필요는 무엇이며, 사회적 농업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일자리, 돌봄, 치료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어떤 활동이 적합한가?

이 사람에게 맞는 농작업 활동은 무엇인가? 이 사람은 어떻게 농장의 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돌봄 vs 교육

돌봄(환경을 바꿔 주는 것)과 교육(배우는 사람의 능력을 높여주는 것)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협력할 사람을 찾고, 역할 나누기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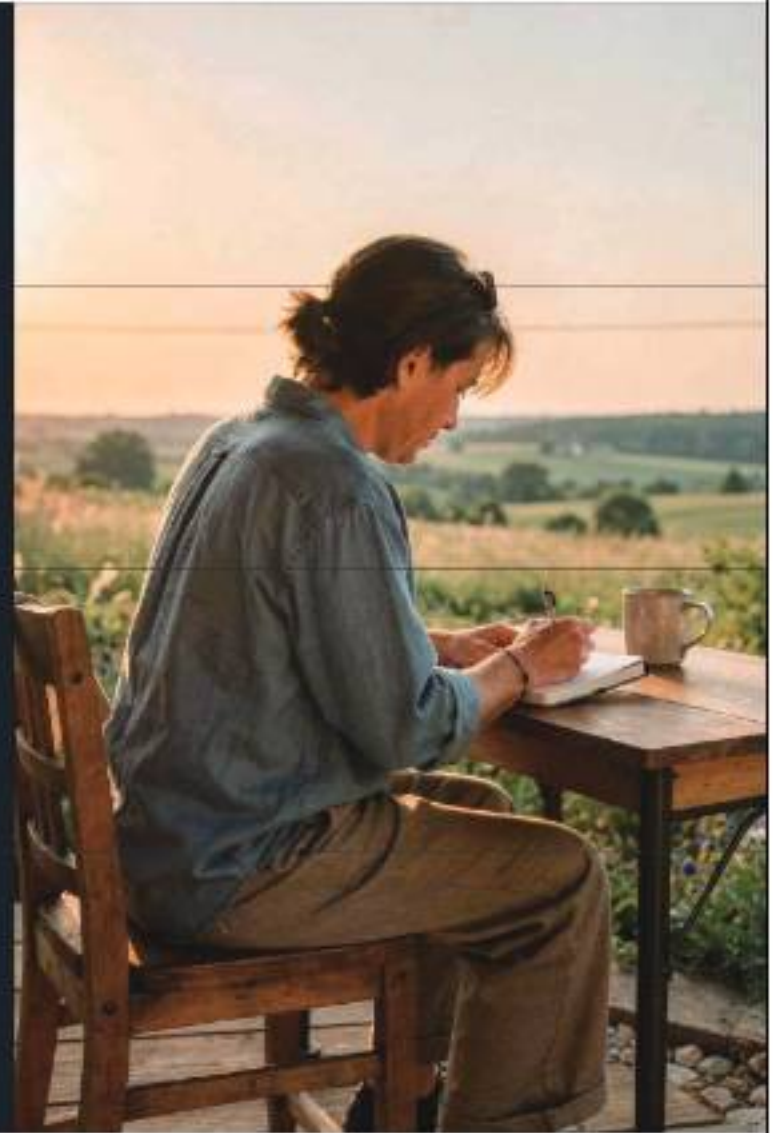
농업인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의료·복지·교육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참여자에게 더 좋은 지원을 제공하는 길입니다.



CHAPTER 05

나의 점검 및 향후 실천 방안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나 자신의 실천 태도를 솔직하게 점검합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찾아봅니다.



나의 태도 점검과 실천 방안 계획

아래 항목을 솔직하게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작성해 보세요

1. 나는 특정 질병이나 장애로 참여자를 규정하지 않고 한 개인으로 존중하는가? (예: 치매 노인이 아닌 치매를 앓고 계신 ○○○님)	✓ YES ✓ NO	
2. 나는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는가?	✓ YES ✓ NO	
3. 나는 참여자에게 의료적/치료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내 직업적 한계를 인정하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가?	✓ YES ✓ NO	
4. 나는 참여자의 자주성(자율권)을 발달시키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가? (예: 작은 농작업 선택권 부여)	✓ YES ✓ NO	
5. 나는 참여자들과 진심으로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것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 YES ✓ NO	
6. 나는 인내심, 공감 능력, 유연성 등 사회적 농업인에게 필요한 소프트 스킬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가?	✓ YES ✓ NO	

CHAPTER 06

정리 및 마무리

오늘 하루 실습을 통해 배우고 느낀 것들을 함께 정리합니다.
각자의 성찰을 나누며 오늘의 학습을 완성합니다.



회고와 성찰

오늘 실습을 마치며, 아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생각하고 모둠원들과 나눠보세요.
각자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큰 배움이 됩니다.

배운 것

오늘 실습을 통해 새롭게 배운 지식
이나 기술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가
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나눠주세요.

새롭게 알게 된 것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달랐던 점, 혹
은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
가요? 놀랍거나 흥미로웠던 부분을
공유합니다.

실천할 것

오늘 배운 내용 중 내일부터 농장에
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
가요? 구체적이고 작은 행동으로 표
현해봅니다.



우리는 사회적 농업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오늘 함께한 실습이 여러분의 농장에서 아름다운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참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농업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사랑합니다

사회적농업 활동 기획, 실행, 평가 I

이효진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

사회적 농업 기획 · 실행 · 평가

완주군의회 이효진

I. 학습목표

- 사회적 농업 참여자의 욕구와 특성, 농장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파악하여 참여자 중심의 활동을 기획할 수 있다.
- 활동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참여자의 선택과 안전을 반영한 운영계획 및 일일활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활동 과정과 참여자의 변화를 기록 ·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활동의 기획과 실행에 반영할 수 있다.

II. 학습개요

사회적 농업 활동의 기획 · 실행 · 평가는 참여자의 욕구와 특성을 이해하고, 농장의 자원과 지역사회의 관계망을 연결하여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기획 단계에서는 참여자의 관심과 능력, 필요한 도움을 파악하고 활동의 목적과 목표, 운영 방법과 역할을 구체화한다. 실행 단계에서는 참여자를 환대하고 선택권과 안전을 보장하며, 계획된 활동을 참여자의 상태와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 평가 단계에서는 활동 과정과 참여자의 변화를 기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활동의 기획과 실행에 반영한다. 따라서 기획 · 실행 · 평가는 분리된 업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순환 과정이다.

III. 사회적 농업 활동 기획 · 실행 · 평가

1. 왜 기획 · 실행 · 평가가 필요한가

사회적 농업 현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활동이 가장 먼저 이야기된다. 텃밭을 만들고, 작물을 심고, 수확하고, 음식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같은 농작업이라도 누구와 어떤 관계로 했는지, 참여자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에 따라 경험의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기획은 서류를 만들기 위한 일이 아니다. 참여자의 특별한 필요와 농장의 가능성,

그리고 양쪽의 한계를 함께 살피는 일이다. 실행은 계획표를 그대로 수행하는 일이 아니라, 현장에서 참여자의 상태와 날씨, 관계의 변화를 읽으며 조정하는 일이다. 평가는 점수를 매기는 일이 아니라, 무엇이 의미 있었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함께 판단하는 일이다.

[생각해 보기] 최근 진행한 활동 하나를 떠올려 봅시다. 그 활동에서 참여자가 직접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운영자가 정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사회적 농업 활동은 기획-실행-평가를 세 개의 분리된 업무로 보지 않고, 하나의 순환 과정으로 살펴본다. 평가는 다시 기획으로 돌아가고, 다음 실행을 바꾼다.

기획	실행	평가	환류
사람·목표·자원·역할을 함께 정한다	환대·안내·활동·안전을 상황에 맞게 운영한다	기록과 대화로 변화와 문제를 살핀다	확인한 내용을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

2. 기획: 프로그램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

2.1 농장을 설명할 수 있어야 연결이 시작된다.

참여자나 연계기관이 농장을 선택하려면 농장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농장 소개 자료는 홍보물이기 전에 서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이다. 참여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담는다.

- 기본 정보: 농장명, 위치, 연락처, 문의할 사람
- 농장 환경: 규모, 작물과 동물, 가공 활동, 이동과 접근 여건
- 연중 활동: 계절별 농작업과 참여 가능한 활동
- 특별 프로젝트: 텃밭, 화단, 가공, 지역문화 활동 등
- 지역 자원 지도: 보건·복지·교육 기관, 행정기관, 상점, 교통, 휴식 공간
- 농장 사람들의 이야기: 왜 농사를 짓고 왜 사회적 농업을 하는지

[핵심]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보다 '우리 농장에서는 이런 경험이 가능하고, 이런 지원과 제약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2.2 연결은 쌍방향의 선택이다.

사회적 농장과 참여자의 좋은 연결은 참여자의 관심·필요·능력과 농장이 제공할 수 있는 활동 기회가 잘 맞을 때 이루어진다. 농장이 참여자를 선발하는 일방향 과정도, 연계기관이 사람을 보내는 단순 배치도 아니다.

1. 사전 정보를 나눈다. 농장은 가능한 활동과 환경을, 참여자는 기대와 필요한 도움을 설명한다.
2. 농장에서 먼저 만나고 둘러본다. 가능하면 참여자를 지원하는 기관 종사자도 함께한다.
3. 해볼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하되, 참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4. 서로 맞지 않는다면 다른 연결을 찾는다. 한 번의 연결 실패가 사회적 농업 전체의 실패는 아니다.

[확인 질문] 참여자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도움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을 각각 구분해 보았는가?

2.3 참여자 지원 계획이 기획의 중심이다.

참여자 지원 계획에는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뿐 아니라, 참여자가 이루고 싶은 목표와 그 목표를 돕는 방법이 들어가야 한다. 필요한 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누가 접근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참여자에게 알려야 한다.

영역	확인할 내용
연락과 비상 대응	참여자·가족·연계기관 연락처, 응급 상황 시 연락 순서
개인 목표	참여자가 농장 활동을 통해 바라는 경험과 변화
필요한 도움	이동, 의사소통, 휴식, 식사, 복약, 작업 보조 등
강점과 관심	좋아하는 활동, 이미 가진 기술, 관계 방식
주의할 점	알레르기, 건강 상태, 민감한 환경, 피해야 할 활동
정보와 동의	기록·사진·영상의 수집과 활용 범위, 공유 대상

2.4 목적과 목표는 참여자의 언어로 구체화한다.

목적은 사회적 농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장기적 방향이다. 목표는 그 방향을 향해 참여자가 실제로 경험하거나 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이다. 목표는 운영자의 기대만으로 정하지 않고 참여자의 희망과 의미를 확인해 함께 정한다.

덜 적절한 목표	더 나은 목표
사회성을 향상한다	8주 동안 동료에게 먼저 인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험을 주 1회 이상 해본다
자존감을 높인다	본인이 맡은 작업을 마친 뒤 어떤 점이 좋았는지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한다
농업 기술을 익힌다	안내를 받아 모종 심기의 세 단계를 순서대로 수행한다

목표가 반드시 숫자로만 표현될 필요는 없다. 다만 무엇을 관찰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면 변화 여부를 알 수 있는지가 분명해야 한다.

2.5 자원과 역할을 연결한다.

자원은 작물과 농기구만을 뜻하지 않는다. 농민의 기술, 보조인력, 자원봉사자, 농장의 공간, 지역의 문화와 자연, 연계기관의 전문성까지 포함한다. 자원을 나열한 뒤 참여자의 목표와 연결되는지 살핀다.

참여자 목표	가능한 농장 활동	필요한 지원	담당·협력
규칙적인 일상 만들기	정해진 요일에 닭 먹이 주기	시각 일정표, 이동 지원	농장 운영자·연계기관
관계 경험 넓히기	두 사람이 함께 수확·포장하기	역할 나누기, 대화 촉진	주강사·보조인력
성취감 경험하기	작은 화분을 완성해 가져가기	단계별 시범, 선택권	농장 운영자

3. 계획서: 문서가 활동을 대신하지 않게 한다

3.1 전체 운영계획과 일일계획

전체 운영계획은 여러 회기의 방향을 보여주고, 일일계획은 한 번의 만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준다. 두 문서는 연결되어야 한다. 일일활동이 전체 목표와 무관하게 재미있는 체험만 반복하지 않는지 점검한다.

전체 운영계획	일일활동 계획
참여자과 기간	오늘 참여자의 상태와 인원
목적과 중·장기 목표	오늘의 구체적인 목표
계절별·회기별 활동	도입-전개-정리의 흐름
인력·공간·예산·협력	준비물·역할·시간 배분
평가 방법과 기록 계획	안전·날씨 변수와 대체 활동

3.2 좋은 일일계획의 기준

- 도입에서 환영하고 오늘의 일정과 선택지를 알린다.
- 활동은 참여자가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단계로 나눈다.
- 기다림, 휴식, 이동 시간까지 계획에 포함한다.
- 참여자가 선택하거나 의견을 낼 지점을 표시한다.
- 기상 악화나 참여자의 컨디션 변화에 대비한 대체안을 둔다.
- 정리 시간에는 결과물보다 경험과 느낌을 함께 돌아본다.

[실무 팁] 일정표에는 '무엇을 한다'만 쓰지 말고 '누가, 어떤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까지 한다'를 적는다.

3.3 협약과 역할 조정

농장, 참여자, 연계기관이 함께하는 경우 역할과 책임을 문서로 합의하는 것이 좋다. 협약에는 활동·지원, 송영·비용, 안전·비상 대응, 개인정보와 기록 활용, 연락·조정 방법을 적는다. 참여자가 농장에 오는 날 무엇을 하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도 쉬운 언어로 설명한다.

4. 실행: 환대, 예측 가능성, 안전, 관계

4.1 첫날의 환대와 안내

첫날은 앞으로의 관계와 활동 방식을 가늠하는 날이다. 농장을 다시 소개하고, 서로 이름과 기대를 나누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든다. 화장실, 휴게 장소, 소지품 보관 장소, 갈 수 있는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직접 둘러보며 알려준다.

[말해보기] '오늘은 세 가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먼저 농장을 둘러본 뒤 어떤 활동부터 해보고 싶은지 함께 정해보겠습니다.'

4.2 일정은 일관되게, 활동은 유연하게

참여자가 하루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으면 불안이 줄고 스스로 움직일 여지가 커진다. 시작-활동-휴식-정리의 기본 리듬은 일정하게 유지하되, 농작업과 세부 내용은 계절과 상황에 따라 바꾼다. 칠판, 그림, 사진, 쉬운 문장 등 참여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오늘의 일정을 보여준다.

4.3 안전은 설명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 위험한 장소와 도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설명한다.
- 처음 몇 주는 도구와 장비 사용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지원한다.
- 날씨, 계절, 작물, 사람의 변화에 따라 안전 점검을 반복한다.
- 보호구·복장·준비물은 누가 마련할지 활동 전에 정한다.
- 참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농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참여자에게 넘기지 않는다.

4.4 관계는 활동의 부수 효과가 아니라 핵심이다.

사회적 농업에서는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것과 함께 관계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참여자끼리 협력할 시간, 농업인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시간, 지역 주민과 만날 기회를 마련한다. 다만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 참여 경험을 어디까지 공유할지는 참여자의 동의에 따라야 한다.

농업인은 참여자에게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제공하지만, 치료자 역할을 맡는 것은 아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역할과 경계를 분명히 하며, 필요한 전문 지원은 연계기관과 협력한다.

확인된 사실	해석	다음 계획의 변경
오후 활동에서 이탈이 잦았다	휴식이 부족했거나 활동 시간이 길었을 수 있다	오후 활동을 20분 단위로 나누고 선택 휴식 추가
수확보다 포장에 오래 집중했다	반복적이고 결과가 보이는 작업을 선호한다	포장 역할을 확대하고 단계별 숙련 목표 설정

5. 기록과 평가: 변화는 목표와 연결해 파악한다.

5.1 평가의 목적

평가는 활동의 목적과 목표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참여자의 경험과 운영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는 참여자만을 평가하는 일이 아니다. 운영자, 프로그램, 협력 관계, 안전과 환경도 함께 돌아본다.

평가 대상	살펴볼 내용
참여자의 경험	관심, 선택, 참여 정도, 만족, 변화, 어려움
운영자	태도, 의사소통, 전문성, 역할 수행, 관계 형성
활동과 환경	난이도, 시간, 공간, 안전, 준비물, 대체 활동
협력 구조	연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역할 분담, 조정 방식

5.2 지표는 ‘변화를 알아차리는 단서’ 이다

지표는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구체적인 단서이다. 참여자에게 의미 있고 현장에서 관찰 가능한 것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관계가 좋아졌다’ 보다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한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한다’, ‘동료의 요청에 반응한다’ 처럼 관찰할 수 있는 행동과 표현을 정한다.

목표	관찰 가능한 단서	기록 방법
농장에 편안하게 적응하기	도착 후 스스로 휴게 공간으로 이동한다	활동일지 관찰 기록
작업 자신감 높이기	새 작업을 시도하거나 완료 후 만족을 표현한다	짧은 면담 + 사진(동의 시)
사회적 관계 넓히기	동료에게 먼저 말하거나 함께할 일을 제안한다	회기별 빈도·상황 메모

양적 지표	* 새롭게 습득한 기술의 수 * 계획한 농장 활동일 수 중 출석일 수 * 계획한 활동 중 끝마친 활동의 비율 * 새롭게 생겨난 사회적 역할의 수 * 직접적인 돌봄에 드는 시간의 변화량
질적 지표	*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 * 농작업 능력에 대한 자신감 * 사회적 관계(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

5.3 평가 방법은 참여자에게 맞게 조합한다

- 면담: 쉬운 질문, 충분한 기다림, 개별 또는 소그룹 대화
- 관찰: 말뿐 아니라 표정, 행동, 선택, 도움 요청, 관계의 변화를 기록
- 질문지: 읽기와 표현 능력에 맞게 문항 수와 언어, 응답 방식을 조정
- 활동일지: 잘된 일뿐 아니라 불만, 실패, 위험할 뻔한 일, 예상 밖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록
- 연계기관·가족과의 검토: 참여자의 동의와 정보 공유 범위를 지키며 여러 관점을 확인

전문 측정도구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도구의 사용에는 전문성과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참여자의 목표와 연결된 간단하고 지속 가능한 기록 체계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자가 응답할 질문	그런 적 없다	그럴 때가 드물게있다	중간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나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느낌이 든다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편안함을 느낀다					
나는 문제가 있을 때 잘 대처한다					
내 생각이 분명하고 정신이 맑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가까운 사이라고 느낀다					
나는 사물이나 일을 머리 속에서 그려볼 수 있다					

5.4 기록할 때 지켜야 할 원칙

- 무엇을 수집하고 왜 수집하는지 참여자에게 설명한다.
- 사진·영상·개인 기록은 참여자의 동의를 받는다.
- 누가 기록에 접근하고 어디에 활용할지 범위를 정한다.
- 판단보다 사실을 먼저 쓴다. ‘의욕이 없다’ 보다 ‘세 차례 제안에 고개를 저었고 휴식을 선택했다’ 라고 기록한다.
- 문제와 실패를 숨기지 않는다. 개선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5.5 평가 결과를 다음 기획으로 환류한다.

평가의 마지막 질문은 ‘잘했는가’가 아니라 ‘다음에는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이다. 목표가 참여자에게 의미 있었는지, 활동의 난이도와 속도는 적절했는지, 필요한 지원은 충분했는지, 농장의 부담은 지속 가능한지를 함께 검토한다.

확인된 사실	해석	다음 계획의 변경
오후 활동에서 이탈이 잦았다	휴식이 부족했거나 활동 시간이 길었을 수 있다	오후 활동을 20분 단위로 나누고 선택 휴식 추가
수확보다 포장에 오래 집중했다	반복적이고 결과가 보이는 작업을 선호한다	포장 역할을 확대하고 단계별 숙련 목표 설정

6. 학습정리

사회적 농업에서 겉으로 가장 잘 보이는 것은 실행이다. 하지만 실행의 질은 그 전에 누구와 어떻게 연결했는지, 무엇을 함께 목표로 삼았는지, 어떤 도움과 역할을 준비했는지에 달려 있다. 그리고 활동이 끝난 뒤 기록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같은 문제를 반복하거나 중요한 변화를 놓치기 쉽다.

기획-실행-평가는 일방이 아니라 순환이다. 참여자를 중심에 놓고, 농장의 현실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결하고, 실행에서 얻은 배움을 다음 기획으로 되돌려야 한다. 좋은 사회적 농업은 화려한 프로그램보다 참여자가 존중받고 선택하며 관계를 넓혀가는 일상의 경험에서 시작된다.

[마지막 질문] 다음 사회적 농업 활동에서 내가 한 가지 바꾼다면 무엇을 바꿀 것인가?

※ 참고자료

「2023년 사회적 농업 실천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 결과보고서」 중 교수학습 참고자료

사회적농업 활동 기획, 실행, 평가 II, III

유수상 대표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복지재단)

사회적 농업 (농촌돌봄농장) **중급1** 교육

-사회적 농업 활동의 기획, 실행, 평가 (연습) II / III



대표이사 유수상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복지재단

이번 워크숍의 학습 목표

- 1** 참여자 (특별한 필요를 지닌 사람)의 개별적인 욕구, 능력, 흥미를 파악하여, 이에 부합하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활동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 2** 기획된 활동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 개개인의 반응과 필요에 맞춰 활동의 난이도나 속도를 유연하게 조절하며 개별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 3** 활동의 목표 달성 여부, 참여자의 만족도, 긍정적 변화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정량적, 정성적)을 설정할 수 있다.

01

그룹 구성 및 역할 정하기

1. 모둠 구성하기

[1조 장애인]

[2조 노인]

[3조 아동청년]

2. 역할 정하기

이코미 (장형)

- 조장은 회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님.
- 회의가 민주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회의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함
- 특히 아이디어를 판단하는 발언을 하거나, 발언권을 독점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줌!

기록이 (기록)

- 서기는 도출된 아이디어를 분류하여 정리함
- 비슷한 유형은 하나로 묶어내고 정리해 냄

토막이 (시간 관리자)

- 시간 내에 논의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시간을 관리하고 알린다.

알리미 (기자)

- 정리된 규칙을 정해진 시간 내에 발표함
- 발표를 위해 사전에 논의 내용을 숙지

02

참여자 이해 및 활동 목표 설정

참여자 이해 및 활동 목표 설정

분석 항목	구체적인 내용
참여자 대상	(예 : 지적장애인, 정신건강 문제 참여자, 행동장애 청소년, 노인 등)
참여자의 특별한 필요	(예 : 소근육 활용 어려움, 소음 민감성, 사회적 고립감 등 구체적인 특징)
활동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	(예 : 자신감 형성, 스트레스 감소, 사회성 증진, 책임감 함양 등)
단기 목표	(예 : 1 회 활동을 통해 참여자가 스스로 씨앗을 심는 경험하기)
장기 목표	(예 : 6 개월간 텃밭을 가꾸며 수확의 기쁨을 느끼고, 다른 참여자와 협력하는 태도 기르기)

03

프로그램 기획 하기

사회적 농업 활동 자원조사

구분	사회적 농업 활동 활용 자원	구분	사회적 농업 활동 활용 자원
식물자원	(잇밭) 임채류 (과수) 배설, 감, 사과, 자두, 블루베리, 체리 (화훼) 국화, 허브, 미지 (수목) 편백, 정원수	시설자원	(교육시설) 배움하우스, 풀밭, 잇밭, 과수원 (놀이시설) 모래놀이장, 시소, 그네, 수영장, 드림 월드 (휴게시설) 벤치, 장자, 해먹, 나무그늘, 잔디밭 (조리시설) 워싱턴아일랜드 및 수도
동물자원	(고감) 개, 고양이, 말, 조류(영문새) (새끼) 토끼, 닭 (축산) 양봉, 염소, 양	지역사회 인적자원	농서문화재, 농촌체험지도사, 문화해설사, 전통 음식명인, 염색지도, 비누공예, 생활공예, 실버레 크레이션, 아뜰리, 건강제조, 농업마이스터
음식자원	(전통) 떡국, 신계탕, 송편, 김치, 된장, 찰국밥 (일반) 김밥, 샌드위치, 피자, 비빔밥, 화전 (차음) 작두공차, 꽃차, 허브차, 버섯차 (효소, 점, 청)	연계기관	치매안심센터 : 치매예방교육, 인지검사 정신보건센터 : 서비스연계 보건소 : 건강교육 사회복지기관 : 복지제도, 사례 서비스 연계 소방서 : 안전교육, 응급구조훈련 경찰서 : 안전교육
지역 문화관광자원	(행사) 대보름굿, 단오제, 꽃축제, 팥바리, 전라도 만자랑대회 (문화) 서원, 보훈수, 역사문화마을, 문화재(석탑, 고택, 고인돌 등) (마을자원) 마을체험장, 산책로, 생활체육공원, 정미소, 방앗간 (기타) 산책로, 숲, 하천, 개곡, 연못, 동굴, 석양, 별 자리	-	-

사회적 농업 활동 연간 계획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회적 농업 실천 계획 수립

구분	핵심 키워드
누구와	# 고용시장에서 불리한 # 도움이 필요한 # 고려해야 할 #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 # 배제된 사람
어디서	# 농장 #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마을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의 물리적 환경
언제	# 당사자가 가능한 (원하는) # 매일 # 작물 재배시기
무엇을	# 돌봄·교육·고용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포함한 # 농업 연계 # 농촌자원 활용
어떻게	# 네트워크 구축 # 당사자 중심 # 의도된 계획 하에
왜	# 사회통합 # 삶의 질 # 지역사회 문제 해결 # 지역공동체 활성화

활동 프로그램 상세 기획

기획 항목	구체적인 내용
활동명	(예: '허브 텃밭의 마법사', '동물 친구들과 함께하는 농장')
총 활동 기간 및 회차	(예: 총 8주, 매주 1회, 1회당 2시간)
주요 활동 내용 (단계별)	1. 도입 (5분): 참여자들과 인사 나누기, 오늘 할 일 간단히 설명 2. 전개 (45분): 텃밭에 허브 모종 심기 3. 마무리 (10분): 물 주기, 오늘 느낀 점 공유하기
세부 활동 설명	-모종 심기: 참여자의 소근육 어려움을 고려하여, 큰 모종을 사용하고, 흙을 담은 용기로 넣은 바구니를 제공한다. 단계별로 쉬운 그림 카드를 보여주며 설명한다.
필요한 준비물 및 도구	(예: 허브 모종, 넓은 바구니, 작은 삽, 물뿌리개, 그림 카드, 활동 일지)
참여자의 특별한 필요 고려사항	(예: 소음 민감성을 가진 참여자를 위해 경운기 소리가 나지 않는 시간대에 활동을 배치한다. 혼자 있기를 좋아 하는 참여자를 위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마련한다.)
활동 진행 시 유의사항	(예: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여 칭찬하기, 참여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다고 안심시키기, 위험한 도구 사용 시 반드시 옆에서 지도하기)
협력 기관 및 전문가	(예: 지역 사회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치료사)

04

사회적 농업 활동 실행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1. 사회적 농업 활동 프로그램별로 참여자의 특징 (성별, 연령, 주거 상태, 건강 및 장애 관련 사항 등)을 개인마다 명확히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회적 농업 활동 프로그램별로 목적, 주요 활동 내용, 회기 (session), 횟수, 회당 시간 등을 기록한다.
3. 예산 계획 서식을 프로그램 단위로 표준화하도록 한다.

사회적 농업 활동(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목적명	
농장명	
일기	년 월 일 ~ 월 일
회기	제1회 회기 (활동주기가 중 1회 1시간 30분 2회 2시간 30분 3회 3시간 30분)
장소	
목적 및 목표	☐ 교육 ☐ 체험 ☐ 교류 ☐ 판매 ☐ 기타()
주요 프로그램 내용 회 당 시간	☐ 농업 ☐ 환경 ☐ 교육 ☐ 교류 ☐ 판매 ☐ 기타()
예산 회기 회당 시간	☐ 농업 ☐ 환경 ☐ 교육 ☐ 교류 ☐ 판매 ☐ 기타()
평가 방법	

양식 : 사회적농장 업무 가이드 (2026 한국농어촌공사)

하루 일정 예시 _ (노인) 여민동락 사회적 농장

시간	활동	설명
6:00-7:00	출근 송영	사회복지사가 탑승하여 출근 차량 운행
7:00-7:20	마을 도착	참여자 탑승 전 건강체크 등 실시
7:20-8:20	농장 도착	
8:20-8:30	활동 설명과 몸풀기	농업활동가가 당일의 활동과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 사회복지사가 농작업 전 몸풀기 지도
8:30-9:30	농작업	농업활동가와 사회복지사가 농작업 지원
9:30-10:00	간식과 휴식 ✓	농업활동가와 사회복지사가 음료와 체력 보충이 되는 음식 제공
11:00-11:30	농작업	농업활동가의 지도로 농기구 정리 등 작업 마무리 사회복지사는 건강상태 및 불편사항 청취 및 기록
11:30	마무리	사회복지사가 탑승하여 퇴근차량 출발
오후	일일 업무 기록 및 정리 ✓	사회복지사와 농업활동가는 일지 작성 등 행정 업무 수행

하루 일정 예시 _ (발달장애아) 달팽이 농장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2시간, 연간 총 22회)	
장소	중세알 뒷밭정원	
참여자	강화 북부 발달장애학생 10명	
농장 활동	시간	활동 계획
13:30-14:40	등록, 농작업 차림 준비	
13:40-13:50	농작업 안내	
13:50-14:30	개인5발 농작업	
14:30-14:40	휴식	
14:40-15:20	공동5발 농작업	
15:20-15:30	농기구 정리 (함제), 소감 나누기 ✓	
주요 내용	최학 농약과 최학 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물은 참여자가 가져가거나 나눈다. 농사 활동 뿐만 아니라 일 1회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	
역할 분담 ✓	특수교육지원센터 :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및 홍보, 참가자 이동 지원, 프로그램 보조 중세알 : 프로그램 진행 전반, 농작업 도구 준비	

자료 : 사회적농업 (발달장애아) 가이드북 (2022 경기도민 사회활동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예시 _ 아동 대상 (일일 프로그램 운영안)

		일일 프로그램 시간표 예시
시간	내용	비고
09:30-09:40(10')	■ 반갑게 맞이하기 ※ 준비운동, 가볍게 스트레칭	사회적 농업 농장
09:40-10:10(30')	■ 농장활동 (강사 : 마을 이장님) ※ 토마토 걸손 따는 법 배우기 ※ 농사일지 작성	
10:10-10:50(40')	■ 체험활동 (강사 : 지역 체험 강사) ※ 플랜박스 만들기, 회	체험관
11:50-11:40(50')	■ 요리교실 (강사 : 마을 주민) ※ 궁중 떡볶이 만들기	
11:40-12:30(50')	■ 점심식사	
12:30	■ 마치는 인사 ※ 웃으며 보내드리기	

좋은 기획을 위한 Point!

1. 다양한 참여 주체가 함께 모여서 기획한다.
2. 기획 단계에서 학습과 탐색은 필수이다.
3.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찾는다.
4. 참여자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5. 적절한 쉬는 시간 배정도 중요하다.
6.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을 마련한다.

사회적 농업 활동 평가

1. 사회적 농장의 농업인은 참여자가 농장에 방문하는 날마다 기록하는 '일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2. 이 일지는 사회적 농업을 진행하는 농업인 자신과 농장을 위한 기록이면서, 참여자와 농업인 모두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이 기록을 토대로 다른 사람이나 전문가가 시간을 내어 토론할 장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기록은 사회적 농업 관련 연구에 활용될 수도 있고, 사회적 농업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영역 : 사회적응능력 업무 가이드 (2026 한국농어촌공사)

평가 지표의 항목

<표> 참여자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의 항목

양적 지표	새롭게 습득한 기술의 수 계획한 농장 활동일 수 중 출석일 수 계획한 활동 중 끝마친 활동의 비율 새롭게 생겨난 사회적 역할의 수 직접적인 돌봄에 드는 시간의 변화량
질적 지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 농작업 능력에 대한 자신감 사회적 관계 (상황) 에 대처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

상시 평가 : 참여자 만족도 조사

- 매 활동마다 참여자의 소감을 들어본다.
- 참여자가 스스로 활동 일지를 써보도록 한다.
- 간단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보드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 사회복지사 등 매개자에게 참여자의 활동 소감을 듣는다.
- 함께 활동에 참여한 분들과 소감을 나눈다.

모든 참여자가 함께하는 피드백 회의



- **Keep** : 좋았던 것, 잘 되었던 것, 앞으로도 계속할 것
- **Problem** : 안 좋았던 것,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
- **Try** : 다음에 다시 해야 하는 것, 새롭게 도전해야 하는 것

정합성평가
실리감사 평가

실행 및 평가 계획

분석 항목	구체적인 내용
평가 방법	(예: 참여자 관찰 일지 작성, 활동 전후 만족도 설문 조사, 참여자-농부 간 인터뷰, 보호자 피드백 수렴)
평가 기준	(예: 참여자의 활동 만족도(1-5점), 자발적 참여 빈도, 다른 참여자와의 상호작용 횟수, 표정 변화 등)
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예: 만족도가 낮았던 참여자가 있다면, 다음에는 그가 좋아하는 활동을 더 많이 포함시키겠다. 상호작용이 적었던 참여자를 위해 2인 1조 활동을 시도해 보겠다.)

06

실행을 위한 규칙과 다짐

사회적 농장에서의 룰 (그라운드룰) 정하기

그라운드룰이란?

집단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약속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약속

참여주체가 모여서 사회적 농장에서 지켜야할 약속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사회적 농장"이 추구하는 가치를 충분히 담아내기

예) 지역상품 이용, 마을 강사 활용 등

룰 테두리 안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무야만양제들

송파구에서 일을 더 잘하는 11가지 방법 동촌토성역 편

- 1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12시 1분은 12시가 아니다.
- 2 실행은 수직적! 문화는 수평적~
- 3 잡담을 많이 나누는 것이 경쟁력이다.
- 4 쓰레기는 먼저 본 사람이 줍는다.
- 5 휴가나 퇴근시 눈치 주는 농담을 하지 않는다.
- 6 보고는 팩트에 기반한다.
- 7 일의 목적, 기간, 결과, 공유자를 고민하며 일한다.
- 8 책임은 실행한 사람이 아닌 결정한 사람이 진다.
- 9 가족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는다.
- 10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창출'과 '고객만족'이다.
- 11 이끌거나, 따르거나, 떠나거나!

자료 : 배민다움 (출판사 : 북스톤)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한 나의 다짐 4가지

- 1 나는 사회적 농업인으로서 참여자들에게 []과(와) []을(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2 나는 활동 중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와(과) 같이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3 나는 참여자의 작은 변화에도 []와(과) 같이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 4 나는 참여자와의 관계에서 []을(를) 존중하며, []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사회적 농업을 일구어 갑니다.





교육과정 교재

사회적농업 중급과정 교재 (유수상)

MEMO

MEMO